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이 교회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선교적 교회로서 새증양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김선일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5년 5월

Copyright © 2025 Sunil Kim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A STUDY ON THE IMPACT OF MISSIONAL CHURCH'S PASTORAL STRATEGIES ON CHURCH MATURITY: FOCUSING ON THE CASE OF SEAJUNGANG CHURCH AS A MISSIONAL CHURCH**

Sunil Kim

Saejungang Church, Anyang,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the missional church through scholarly inquiry, analyzes how the missional church practically carries out its mission through the pastoral strategies implemented by Saejungang Church, and investigates how missional believers, as mission resources, live out a missional life—thereby exploring the impact of these pastoral strategies on the maturity of both the church community and its members.

Contemporary churches are transitioning from periods of revival to phases of decline. In an era where the survival of the church takes precedence over its growth, the pastoral strategies of the missional church propose that the church's ministry and resources are not to be confined within its walls; instead, they should be directed toward equipping believers to live the gospel in the world.

Both the church community and its members are called to obey Jesus' Great Commission by discipling the people. To fulfill this mandate, they must venture

creatively into the world—preaching the gospel, baptizing new disciples who receive salvation through faith, and, beyond baptism, teaching, training, and nurturing them to become true disciples. All these ministries must be carried out in the world to which God sends His missional people rather than being limited to the church premises.

The effective establishment of the missional church's pastoral strategies—and the subsequent maturity of its community and members—depends on an attitude of humility and a spirit of servanthood. Without these qualities, it is exceedingly difficult for the community and its members to sustain a truly missional life. When believers, armed with the gospel, go forth into the world with humility and service, they will witness the fruitful expansion of God's kingdom.

Saejungang Church, where the author serves, exemplifies a sending church that has established and executed the pastoral strategies characteristic of a missional church. As a result, its community and members are now actively living a mission-oriented life in the world. The concept of the Vision Campus encapsulates the idea that the focal point of the gospel extends beyond local congregations to include every sphere of life where missional believers dwell. Similarly, the vision for mission ministry holds that every believer in a missional church becomes not only a missional disciple but also a mission resource, actively living out the call to a missional life.

In summary, when the pastoral strategies of the missional church are effectively implemented and its members embrace lives marked by humility and servanthood, the church will mature—and such maturity will ultimately lead to its revival.

## 국문초록

###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이 교회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선교적 교회로서 새중앙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 선 일

서울, 대한민국

이 논문은 먼저는 학문적인 고찰을 통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새중앙교회의 목회전략을 통해 선교적 교회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선교적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고찰해보고, 선교적 교회의 선교적 성도가 선교적 자원으로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지 연구함으로써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성숙에 영향을 주는 가를 고찰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대 교회는 부흥기에서 쇠퇴기를 지나고 있다. 교회의 성장을 말하기 보다는 교회의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은 교회의 사역과 자원이 교회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세우는 방법을 제시한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순종하며,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으로 세상으로 가야 한다.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새로운 제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참된 제자

가 되도록 가르쳐 지키도록 훈련하고 양육해야 한다. 이 모든 사역이 교회 내부에서  
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세상 즉, 선교적 성도로 파송을 받은 세상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을 수립하고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성숙을 이루기 위  
해서는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필수다.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없이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 어렵다.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선교적 공동체와  
선교적 성도가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으로 갈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필자가 섬기고 있는 새중앙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다. 새중앙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선교적 목회전략을 통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 비전캠퍼스는 복음의  
거점이 지역교회 뿐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사는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비전 선교사는 모든 성도가 선교적 교회에서 선교적 성도가  
선교적 자원이 되어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는다.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을 수립하고,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교회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성숙은 교회의 부흥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 목차

감사의 글 .....	ix
I. 서론 .....	1
A. 연구 배경 .....	1
B. 연구 목적 .....	1
C. 연구 방법론.....	3
II. 선교적 교회의 이해 .....	5
A. 선교적 교회의 이해 .....	5
B. 성경적 관점의 선교적 교회 .....	10
C. 선교적 교회의 목표 . . . . .	15
D. 선교적 교회의 성도 .....	23
III. 새중양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 .....	29
A. 새중양교회의 선교적 부흥 .....	29
1) 새중양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목회전략 .....	31
2) 선교적 자원으로서의 선교적 교회의 부흥 .....	37
3) 선교적 다양화로서의 선교적 교회의 부흥 .....	51
B. 새중양교회의 선교적 성숙 .....	72
1) 선교적 거점으로서의 가정선교 .....	74
2) 선교적 거점으로서의 지역선교 .....	77
3) 선교적 거점으로서의 세계선교 .....	82

IV. 새중앙교회의 사례연구: 선교적 교회의 거점인 선교적 성도를 중심으로 ..	
88	
A. 사례 1: 새중앙교회 비전선교사 .....	81
B. 사례 2: 새중앙교회 비전캠퍼스 .....	95
C. 사례 3: 새중앙교회 새한반도센터 .....	102
<b>결론</b> .....	116
A. 연구 요약 .....	116
B.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 방향 .....	120
<b>참고문헌</b> .....	122

## 감사의 글

먼저 아무 것도 가진 것 없고, 내세울 수 없는 부족한 자가 박사학위의 과정을 밟고,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리고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부족한 자를 위하여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지도로 함께 해준 분들이 많다.

먼저는 새중앙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현재까지 1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교역자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도와 주신 새중앙교회의 황덕영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그리고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신 세 분의 지도교수님 ‘레너드 스윗 교수님, 조병호 교수님, 김영래 교수님’ 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또한 부족한 자식을 아낌없는 사랑과 기도로 지금까지 가장 든든한 영적인 후원자로 지지해주시는 어머니님과 장인, 장모님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논문과 공부의 과정에서 한결 같은 사랑과 기도로 응원해준 사랑하는 아내 조은화 전도사와 딸 서현이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2025년 5월

김 선 일

## I. 서론

### A. 연구 배경

오늘날 인류는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교회도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글로벌화와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국가와 도시 그리고 가정과 같은 공동체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의 공동체성을 약하게 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 약화와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성의 붕괴는 교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의 붕괴를 초래하며, 교회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동시에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인류의 삶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과학기술의 편리함의 이면에 있는 도덕적, 윤리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과학이 발전한 수록 인간성은 약해지고, 공동체성은 무너지고 있다. 필연적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는 이러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의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성장이 아닌 생존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현실이다.

### B. 연구 목적

선교적 교회는 이러한 변화와 교회에 대한 도전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선교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선교적 교회는 한 시대의 movement, 혹은 시대적인 전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을 중심으로 선교가 목회의 한 부분이 아닌, 모든 부서와 기관과 직분과 세대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목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 목회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선교적 목회를 통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목회전략이다.

이러한 선교적 교회의 정의를 통하여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선교적 교회의 개념과 특징을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한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선교적 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제시하여, 선교적 교회가 교회 부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이 교회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현장을 분석하여 증명하고자 한다.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활용하여,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이 교회와 성도의 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셋째, 본 연구는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을 통해 사역하는 새중앙교회를 사례로 하여 한국 교회에게 선교적 목회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비판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이 한국 교회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효과적인

목회전략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새중앙교회의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에 따른 사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이 교회 성장을 넘어서 지역 사회와의 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선교적 교회는 단순히 교회의 성장을 넘어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지역 사회와 상호 작용을 통해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선교적 교회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의 성숙을 이루어 가고,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 C.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이 교회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론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선교적 교회가 교회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는 학술적 연구와, 실제적인 사례 소개, 리서치와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다.

둘째, 본 연구는 새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이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새중앙교회의 목회 전략, 부흥과 성장,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이 교회 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선교적 교회의 모델인 새중앙교회의 리더십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리서치, 인터뷰의 연구방법론을 사용한다. 새중앙교회의 실제적인 선교 자원으로서의 리더십들에게 먼저는 논문의 주제와 방향에 맞춘 주제들을 제시하고, 리포트를 받는다. 리포트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수정 보완하고, 사역을 이루는 현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본 논문에 활용하여 작성한다.

넷째, 본 연구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새중앙교회의 선교모델로 사역하고 있는 평신도에 대한 개인 인터뷰를 통해 선교적 교회의 선교적 성도로서 사역을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과정과 선교적 사역의 성공 사례와 선교적 성도의 삶이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교적 교회가 교회와 성도의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교회에 필요한 효과적인 선교적 교회의 목회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선교적 교회의 이해

### A. 선교적 교회의 이해

선교적 교회론은 이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논의가 되었다. 그러다 인도에서 선교사역을 하였던 영국의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을 중심으로 미국의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GOCN- the Gospel and Our Cultural Network)에 의하여 발전되었다.<sup>1</sup>

2,000년 역사의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물질적이고 세속적으로 변해오면서, 그 본질을 잃어가는 위기에 처해있다. 그래서 한 때 “초대교회 복귀론”을 주장하며,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모델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교회론 정립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그러한 연구를 통해 떠오르는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이다. 1998년에 처음으로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선교적 교회론’으로 발전하였다.<sup>2</sup>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은 칼 바르트(Karl Barth)와 헨드릭 크래머(Hendrik Kramer)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었고, 1953년 독일의 빌링겐(Willingen)에서 열린 IMC

---

<sup>1</sup> 장준우, “선교지에서 선교적 교회 모색: 태국 남부 끄라비에서 관계적/영적 교회 연구” 11.

<sup>2</sup> Darrell Guder, Editor,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MI: Eerdmans, 1998). 장준우, “선교지에서 선교적 교회 모색: 태국 남부 끄라비에서 관계적/영적 교회 연구” 11.에서 재인용.

회의에서 칼 하르텐슈타인(Karl Hartenstein)이 주장한 ‘하나님의 선교’ (Mission of GOD) 에 근거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 이야기한다.<sup>3</sup>

‘하나님의 선교’ (Mission of GOD)는 선교가 더 이상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본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는 해외선교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사역에 대한 다양한 이론 중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본질과 선교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세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교회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확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담임목회자와 건물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였던 기존 교회가 보여주었던 성도의 수가 증가하는 성장 지향적인 모습과 교회의 내적 안정화에 사역의 방점을 두었던 모습에서 벗어나 교회가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복음 중심적인 교회로의 전환,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확장 지향적인 교회로의 전환, 교회가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사랑과 화해, 배움의 영성을 회복하는 회복 지향적인 교회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2012년 12월 새중앙교회에 부임하여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다. 그 전까지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

<sup>3</sup> Darrell Guder, Editor,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MI: Eerdmans, 1998). 장준우, “선교지에서 선교적 교회 모색: 태국 남부 끄라비에서 관계적/영적 교회 연구” 112에서 재인용.

새중앙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이고, 선교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지금의 새중앙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란 무엇일까? 선교적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와는 다른 교회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전통적인 교회의 약점을 보완하여 나타나는 형식의 교회일까? 금세기에 들어 교회와 선교의 상호관계는 많은 연구와 대화의 주제가 되었지만, 결론이 상반된 경우가 많았다.<sup>4</sup> 교회와 선교는 하나라는 것과 교회와 선교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전통적인 교회론에서는 교회와 선교를 동일시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통적인 개념에서 교회는 말씀과 성례, 증거를 위주로 하는 지상의 모든 신앙가족들의 모임, 즉 통일성과 성결성, 보편성과 사도성을 갖는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으로 정의한다. 더 나아가 스티븐 니일 주교의 말대로 선교는 “복음 전파의 목적을 가지고 말과 행함에 있어서 교회 밖을 향해 의도적으로 장벽을 넘어가는 것”으로 정의된다.<sup>5</sup>

그렇지만, 필자가 섬기고 있는 새중앙교회의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와 선교가 다른 본질의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선교라는 개념이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의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sup>6</sup>이다.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나타난 주요 실천 사항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는 “가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의 출발은 내가 있는 곳에서 보내신

<sup>4</sup> 찰스 E. 벤 앵겐,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임윤택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6.

<sup>5</sup> Ibid., 7.

<sup>6</sup> 마태복음 28장 18-20절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곳으로 가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에 세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이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보내신 자리로 “가게” 되었다.

먼저는 핍박의 방법이다.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할 때에 스테반 집사는 순교했다. 그리고 스테반 집사의 순교 직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sup>7</sup> 그리고 그 박해를 통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신약의 교회는 그 시작부터 박해를 통해 흩어지게 된 것이다. 이 흩어짐을 통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교회가 “가게” 되는 두번째 방법은 “파송”이다. 이 개념은 예수님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sup>8</sup> 예수님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세상으로 파송 받아 “오신 것”이고,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가신 것”이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과 헬라인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된다.<sup>9</sup> 이후에 안디옥에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기록한다. 그리고 바울은 이 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된 것이다.

<sup>7</sup>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sup>8</sup> 요한복음 20장 21절.

<sup>9</sup> 사도행전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둘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세례는 전통적 교회론에서 교회가 갖는 표지이다. 장로교 신앙고백서의 표준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예전이다.”<sup>10</sup>라고 고백한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선교적 교회가 가는 곳에서 또다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선교적 교회가 세상으로 가서 세상으로 간 목적을 달성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세례가 복음을 들은 자가 구원을 얻었다는 본질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례는 복음을 듣고,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인해 중생과 칭의를 경험한 성도에게 주는 외적 예식이다. 외적 예식이라는 것은 그것이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성도가 공적으로 얻는 증거라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교회가 세례교인을 얻었다는 것은 교회의 선교를 통해 결과를 얻었다는 의미가 된다. 선교적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도 같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목표의 중요한 외적 표지가 바로 세례이다.

셋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새중양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제자를 삼는 사역은 가서, 세례를 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선교적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뿐 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자들을 양육한다. 선교적 삶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열매를 보는 것을 넘어, 이제 막 구원 받은

<sup>10</sup>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1절.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신약의 성례이다. 그것은 수세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한 것뿐 아니라, 그에게 은혜의 계약의 인을 친 표가 되며,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과, 죄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드러서 새 생활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와 확증을 의미한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제정한 것이며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계속할 것이다” [출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전문 (영.한) 작성자 풀별.

영혼을 양육하여 자라나게 한다.

선교적 교회로서 모든 성도가 양육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회심자를 얻는 것이 단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회심자를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많은 선교적 삶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존 교회가 해오던 선교가 교회 사역의 일부이고, 선교는 훈련 받고 파송 받은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사역이라고 여겨왔던 선교와는 다른 개념이다. 모든 성도가 전도할 뿐 만 아니라, 전도한 영혼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양의 일을 하는 것은 성도 개개인의 삶이 선교사적 삶으로 헌신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E. 벤 앵겐이 말한 것처럼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성도가 필요하다.<sup>11</sup>

## B. 성경적 관점의 선교적 교회 “ ‘대위임령’ 과 ‘선교위임령’ 을 중심으로 ”

###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

예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은 선교의 대명령이다. 4복음서는 모두 선교의 대명령으로 끝나며, 사도행전은 대사명으로 시작한다.<sup>12</sup> 대사명의 내용은 본문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다. 마태복음은 선교의 권위를, 마가는 선교의 범위가 전세계적임을, 누가는 선교의 순서를, 요한은 영적 자격과 요구를 각각 강조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며, 이 명령은

<sup>11</sup> 찰스 E. 벤 앵겐, *op. cit.*, 251.

<sup>12</sup> 전호진, *선교학*(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885), 64.

2,000년 선교 역사에서 선교의 중요한 동기가 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 명령은 선교의 대헌장이다.<sup>13</sup>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대위임령에 대해 해석상 중요한 내용은 제자를 삼는 것이다. 나머지 세 동사(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는 분사형으로 주동사를 수식한다. 따라서 교회는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여 보내야 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세례를 주며 가르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선교 신학은 제자 삼음을 강조한다.<sup>14</sup> 제자를 삼는 것은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성경적인 기초이다. 선교적 교회는 대위임령에 따라 ‘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성취한다. 기존 교회의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교회에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품고 잉태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보다는 자신의 신앙생활에만 급급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따라 예수님의 참 제자를 만드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목표가 된다.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영혼을 예수님의 참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근거를 잘 보여주는 성경은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은 모든 성경 중에서 선교적 교회의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 또한 사도행전은 선교 뿐 만 아니라 교회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는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대 교회 성장 운동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 성장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sup>13</sup> Ibid., 66.

<sup>14</sup> Ibid., 67.

분석한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 성장의 원인은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열렬한 전도활동이다.<sup>15</sup> 이렇듯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교회가 더 이상 선교적이지 않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사도행전의 선교위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선교명령을 통해 세워지게 될 선교적 교회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위임령이 이제 태동하게 될 신약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갈 것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말씀이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의 실제적인 전도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이후에 시작되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에게 방언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었으며, 담대히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초대 교회는 이방 선교를 함에 있어서

---

<sup>15</sup> Ibid., 68.

특별한 지시를 받았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 할 때도 그들의 임명과 안수는 성령이 명하였으며(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이 아시아에 먼저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유럽으로 향하도록 한 것도 성령의 지시이다. 이 점에서 성령은, 구약에서 예언하였으며 예수께서 명하신 이방 선교를 실천에 옮기도록 한 선교의 집행자이다.<sup>16</sup>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한 전도가 시작될 때에 평신도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이끌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평신도들 특별히 집사들이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초대교회의 일곱 일꾼이 안수 받아 세워졌다. 이들의 역할은 구제하는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그 중, 두 명의 유명한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기록되었다. 스테반 집사는 자유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의 재판을 받고, 결국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sup>17</sup> 빌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후에 복음의 대상으로 예언하고 있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초대 교회는 목회자나 전문인 선교사들에 의해 교회가 확장된 것이 아니다. 평신도 중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확장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전파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더욱 강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선교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성령이 도우시는 전략이 있다. 사도행전에서의 선교는 바울의 전도가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한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선교 전략은 다음과 같다.

<sup>16</sup> Ibid., 70.

<sup>17</sup> 사도행전 6장 8-7장 60절.

첫째, 공동체적인 전도이다. 구원은 개인의 영역이지만, 베드로와 바울의 전도를 보면, 공동체적인 회심을 경험한 것이 분명하다. 맥가브란의 선교 이론은 사도행전의 그룹 단위의 회심에서 집단 개종 운동 이론을 수립하였다. 그의 이론은 지나치게 “집단주의” 라는 인상을 주지만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사실이다.

둘째, 동역의 원리이다. 베드로나 스테반은 독자적으로 전도하였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을 통한 전도의 주체가 독자적이 아닌 ‘우리’ 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전도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동역의 원리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의 문제로 다투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다툼이 사도행전의 전도를 멈추게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를 칭찬하였다. 동역의 원리를 적용하기 힘든 한국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의 원리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도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영역을 잘 이해하였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 끝인 이방으로 확장할 때에 할례와 같은 유대교의 문화적인 의식이 이방인에게도 적용하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위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이 총회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총회로서 복음의 확장을 위한 총회였다. 총회를 통해 할례와 같은 유대교의 문화적인 의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이방인들도 도덕성을 지킬 것을 결정하였다.

넷째, 사도행전의 선교는 대도시 등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였다. 바울의 선교는 도시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여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등 지방에 중심 도시를 먼저 정복하였으며, 그 도시의 신혼 교회가 주변

지역을 전도하게 되었다. 이것은 현대 교회 성장학이 말하는 복음에 더 수용적인 장소를 사회학적으로 미리 파악하여 그곳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기 보다는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를 택하였다는 것이다.<sup>18</sup>

### C. 선교적 교회의 목표

선교적 교회에는 선교적 목표가 필요하다.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각각 전략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선교적 교회는 성도들에게 선교 정신을 심어 주고, 자라게 하고, 다듬어서 나아가게 하시는 강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 선교적 교회가 된다.<sup>19</sup> 선교적 교회의 성도는 선교적 자원이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중심(church-centered)이 아닌 세상-중심(world-centered) 교회로 변화를 추구한다.<sup>20</sup>

선교적 교회는 교회 중심(church-centered)적 교회에서 세상-중심(world-centered)적인 교회로 변화되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가장 핵심적 내용이다. 특히 제도와 형식 중심 교회(Christendom)의 시대는 이제 마감을 하였고, 후기 기독교 사회(Post Christendom)을 맞이하면서 교회는 더 이상 건물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이다.<sup>21</sup>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는 더 이상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가야 한다. 예수님의 대위임령도 가서 제자 삼는 것에 목표를 두고

<sup>18</sup> 전호진, *op. cit.*, 73-75.

<sup>19</sup> 찰스 E. 벤 앵젠, *op. cit.*, 237.

<sup>20</sup> 장준우, *op. cit.*, 14.

<sup>21</sup> 장동민,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25.

말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의 기초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의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있으면, 교회의 구성원이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복음의 거점이 된다. 복음의 거점이 되면 거점에서부터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선교적 교회의 성도는 세상-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

예수님은 교회로 사람을 불러모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에게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 등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 가야 할 곳이 된다. 이것은 이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있는 곳으로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의 성도가 불신자들이 있는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 자체가 세상으로 파송 받아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고, 선교적 교회의 목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모임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이전의 전통적인 교회들은 교회라는 건물 중심적 모임과 만남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 세상에 나아가 주말과 주일 뿐 아니라 평일에도 다양한 시간, 다양한 장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복음의 내용을 나눈다. 이러한 선교적 교회의 시도는 교회에 들어오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편하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선교적 교회는 개인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주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날 모든 사고의 중심은 개인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 시대에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기존의 토대는 기초가 될 수 없다. 또한 개인이 기준이 되어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공동체보다 개인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이 특별한 은혜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부르신 분이 계시고, 목적에 따라 모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개인주의가 되면, 교회 내에서도 더 이상 같은 믿음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와 더불어 실용주의까지 더해져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불필요한 행동 또는 의견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도 반대를 하며, 함께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공동체 중심인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교회의 사역들은 효율적인 면에서 계산하게 되었고, 과정보다 결과를 더욱 중요시 여기면서 많은 사역들이 시작조차 하지 못하였다.<sup>22</sup> 이러한 사상들이 개인의 신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교회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는 곳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교회에서 만큼은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 개인주의가 들어온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를 함께 하는 것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게 되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개인주의가 더욱 심해지는 시간이었다. 개인주의의

---

<sup>22</sup> 장준우, *op. cit.*, 16.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뿐 아니라, 개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공동체를 이룰 수 없었고, 개인으로만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19의 영향력은 여전히 개인주의를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개인주의를 교회에 적용하면 ‘개교회주의’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교회가 자신들의 교회에만 집중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교회가 칭의 ‘에 대하여 이야기는 하지만 사회 구원과 정의 실현,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것 또한 교회 개인주의의 한 모습이다.<sup>23</sup>

선교적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공동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는 개인보다 공동체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한다. 선교적 교회의 성도는 선교적 성도이다. 선교적 교회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함께 협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사랑의 마음으로 각 개인은 공동체에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이런 사명을 위하여 성도 개인의 삶과 문화,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한 명의 소중한 일원임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킨다.<sup>24</sup>

교회도 마찬가지로이다. 지역교회가 개교회주의가 아닌 예수님의 몸 된 교회로서 한 몸임을 고백하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sup>23</sup> 레슬리 뉴비긴, “삼위일체적 선교”, 최형근 역(서울: 바울, 2015), 32-58.

<sup>24</sup> 장준우, *op. cit.*, 17.

교회들이라도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야 한다. 하나님은 개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선교적 교회는 나 혼자만 혹은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을 지향하지 않는다. 선교적 교회는 우리 공동체와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한다. 개인과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된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개교회 중심의 성장을 지양하고, 각 교회들이 속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연합과 협력하는 지역 에큐메니칼(Ecumenical) 선교운동이다.<sup>25</sup>

선교적 교회는 목회자 중심에서 선교적 성도 모두를 선교사로 파송 하는 교회이다.

한국의 기존 교회는 모든 사역들이 목회자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그래서 목회자가 바뀌거나 목회자의 사정으로 사역을 지속할 수 없을 때는 새로운 목회자에 의하여 새로운 사역으로 전환된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모든 사역은 목회자의 아이디어와 진행으로 이루어지고, 성도들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선교적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받은 백성',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백성'으로 인식되면서 선교적 성도 모두가 교회의 진정한 주체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sup>25</sup> 한국일, "선교적 교회로서 지역교회의 역할 연구," 선교와 신학 제44집(2018), 75.

<sup>26</sup> 장준우, *op. cit.*, 18.

지금까지의 선교사는 교회 혹은 선교단체에서 일정한 훈련을 받고, 정식으로 파송 받은 공식적인 선교사를 의미하였다. 하지만, 선교적 교회는 모든 성도가 선교적 성도로서 매 주일 가정과 세상으로 파송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교적 성도가 선교사적 삶을 살기 위해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것은 선교가 어떤 특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의 성도라면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성도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가정과 세상으로 돌아가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건물로서의 교회중심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이며, 자신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선교사적 인식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회는 목회자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과 동일하게 선교적 삶은 선교사들에게만 국한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이러한 기존 교회의 인식을 벗어나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선교사적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가 되도록 훈련한다. 교회의 성도가 선교적 성도로 변화되면 선교적 자원으로서 세상에서 복음의 일을 감당한다.

선교적 교회는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한국일은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세상)와 신뢰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신앙과 선교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인프라를 건설하는 운동이다. 선교적 교회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주민, 더 나아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운동이다.”<sup>27</sup>

지역교회는 지역 사회 안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날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교회 안에서의 교제와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역교회가 교회 안으로만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교회가 더욱 지역 사회로 가야 한다. 교회가 더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좋은 인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지역 사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선교적 교회의 사역의 목표는 지역사회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가 지역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결국에는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의 복음전도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 지역 사회로 가서 지역 사회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이다.

“선교적 교회는 지역사회, 지역주민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친교(코이노니아)를 바탕으로 폭넓은 차원의 선교운동을 전개하는 활동이다.”<sup>28</sup> 지역사회, 지역주민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가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sup>27</sup> 한국일, *op. cit.*, 75-78.

<sup>28</sup> 한국일, *Ibid*, 80.

그들에게 가는 것 뿐 만 아니라, 사회와 이웃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sup>29</sup> 소금은 소금인데 세상의 소금이고, 빛은 빛인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소금이 세상에서 맛을 내야 한다는 의미이고, 빛이 세상에서 빛을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은 제자가 가지는 본질적인 정체성 뿐 만 아니라, 어디에서 그 정체성을 나타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 주신다.

이러한 빛과 소금에 대한 이해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선교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과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도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로써의 특별한 책임을 갖는다. 성도들도 소금처럼 사방으로 흩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흩어져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들은 이 땅의 소금이 아니다. 선교적 교회는 성도들이 가진 특별한 소금의 직분과 그 소금을 뿌리는 일을 삶의 현장에서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별히 교회가 이 땅에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려 한다면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 소독제 역할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sup>30</sup>

만약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교회와 사회는 서로에게 지속적인 어려움을 일으키는 관계가 될 것이다. 교회 세상으로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교회와 지역사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는 관계가 된다.

<sup>29</sup> 마태복음 5장 13-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sup>30</sup> 찰스 E. 벤 앵젠, *op. cit.*, 229.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지역사회로 들어가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 사회의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D. 선교적 교회의 성도

계속해서 서술하였듯이 선교적 교회에는 선교적 자원으로서의 선교적 성도가 필요하다. 1960년대 중반에 웨슬리 베이커(Wesley Baker)는 그의 『갈라진 계층과 친교』(*the Split-Level Fellowship*)<sup>31</sup>라는 책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헌신된 소수와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다수의 놀라운 차이에 대하여 새 이름을 붙였다. 그는 이 현상을 '베타 요인' (factor Beta)이라고 불렀다.

이 요인은 간단하고 분명한 사실이다. 조직된 교회 내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 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동기 유형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그룹을 지도자와 추종자로 분류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교구를 살펴보라. 대부분 소수의 헌신되고 열심인 사람들이 지도자의 위치를 다 차지한다. 그 주위에는 전혀 교회 일에 관여치 않거나 그저 따라다니거나 하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다. 그런데 교회 내부를 장악한 소수의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선교적 교회로서의 교회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므로, 이런 상황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주도권을 잡은 내부 인사들과 극한 전쟁을 치르지

<sup>31</sup> Wesley Baker, *the Split-Level Fellowship*(Philadelphia: Westminster, 1965).

않고는 어렵게 되어 있다. 모든 교구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무언의 다수가 선교활동에 철저히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 교육의 문제나 복음 전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sup>32</sup>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 헌신된 성도는 아니다. 지금의 교회는 10퍼센트 정도의 헌신된 성도를 포함한 30퍼센트 정도의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와 나머지 70퍼센트 정도의 비 활동 적이며 무관심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비율의 비 활동 적인 성도들을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앞선 30퍼센트의 사람들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볼 수 있을까?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고 말씀하셨다. 누구는 제가이고, 누구는 제자가 아닌 구성원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다시 말해, 교회의 세례 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개신교의 종교개혁은 ' 만인 제사장 '이라는 의식을 일깨웠다. 이것은 기도, 중보, 칭의, 성화, 봉사 등에 모든 성도들이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3</sup>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명령인 ' 가서 제자 삼으라 '는 말씀에 따라 선교적 성도가 되어야 한다.

선교적 교회의 선교적 성도는 선교적 자원으로서의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

선교적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다. 상에서

<sup>32</sup> Wesley Baker, *op. cit.*, 60.

<sup>33</sup> 찰스 E. 벤 앵젠, *op. cit.*, 254.

살아가는 방식과 문화에 물들지 않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선교적 성도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요소이다. 선교적 성도가 세상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며,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가까이하고,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며, 교회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실천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성도는 교회 중심이다. 그렇지만, 선교적 성도가 교회가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니다. 선교적 성도는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교회에서 얻은 영적 동력을 가지고 세상을 중심으로 선교한다. 선교적 성도는 교회 안에서는 연합하며, 세상에서는 거점이 된다.

선교적 성도는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이다.

선교적 성도는 세상에서 거점의 역할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연합하는 성도이다. 선교적 성도가 세상에서 거점으로 사는 것과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 살기 위해서는 겸손과 섬김의 요소가 필수이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는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한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다. 선교적 자원으로서 선교적 성도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인정한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선교적 자원으로 사용하기로 헌신한다. 각각의 은사와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의 성도는 필연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내가 가진 은사와 다른 성도가 가진 은사가 함께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성도와 성도가, 은사와 은사가 만날 때에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교적 성도가 세상에서 복음의 거점으로서의 선교적 삶을 살 때에 나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점과 거점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뿐 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

선교적 성도는 파송 받는 성도이다.

기존의 공식적인 목회자 혹은 전문인 선교사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면 파송 받은 국가 혹은 지역에서 독립적인 사역을 한다. 그렇지만, 선교적 교회의 선교적 성도는 특정한 국가 혹은 지역으로 파송 받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생활을 통해 선교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선교적 성도는 매 주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다. 선교적 교회의 성도가 매 주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선교적 성도가 된다는 것은 선교적 교회의 모든 성도는 선교사적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이다. 기존의 공식적인 선교사는 훈련 받은 제한된 숫자의 훈련 받은 성도 혹은 목회자가 파송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교사 한 명을 파송 하기가 어렵다. 새중앙교회의 비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 한다는 것은 꿈처럼 들리는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선교적 교회는 모든 성도를 선교적 자원으로 선교적 성도로 가르치고 훈련한다.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공동체적으로 이루어 갈 때 교회의 모든 구성원인 선교적 성도 개개인이 선교적 삶으로 헌신하여 동참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의 성도는 매 주 선교적 성도로 세상으로 파송 받아 복음의 거점으로 산다.

선교적 성도는 지역 사회에서 선교적 거점이 된다. 선교적 성도들 뿐 아니라 성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과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간다. 숫자가 많은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관계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대상은 소그룹이다.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주 무대가 세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그 자체가 세상에 세워진 복음의 거점이다. 교회 공동체 자체가 거점이 되는 것이다. 세상이라는 선교의 무대 위에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다. 그렇지만, 공동체는 개인이 모인 집단이다. 교회가 세상에서 거점이 되어 서 있는 것처럼 성도 역시도 자신의 삶에서 복음의 거점으로 서 있는 것이다. 선교적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공동체에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 자신의 삶의 자리를 거점 삼는 선교적 거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성도가 거점으로서 예배를 세우는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고, 파송 받은 성도의 삶의 자리이다. 성도의 삶의 거점은 예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에서의 예배는 공예배의 개념이 없다. 가족 구성원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예배를 세우고 있다면, 삶의 거점에서 예배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 선교적 성도가 거점으로 살고 있는 학교는 더더욱 예배가 없을 것이다. 직장도 마찬가지이다. 예배가 없는 곳에 선교적 성도라는 복음의 거점이 세워진 것이다. 복음의 거점으로 세워지면, 거점에서 예배를 세우는 것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것이다. 선교적 성도가 거점이 되어 파송 받은 곳에 예배를 세움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까지 확장된 것이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선교적 성도의 사명이고 삶이 된다.

### III. 새중앙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

#### A. 새중앙교회의 선교적 부흥

필자가 13년을 넘게 섬겨온 새중앙교회는 1983년 1월에 박중식 원로목사를 통해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포일 주공아파트의 문갓방 하나를 얻어 예배당으로 시작하였다. 3개월여의 가정예배를 통해 아파트 상가 201호에서 포일중앙교회로 시작한 것이 지금의 새중앙교회의 40여년 역사의 시작이었다. 개척교회의 시작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포일 중앙교회도 월세를 걱정하고, 성도는 많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어려운 와중에도 개척예배 헌금부터 선교헌금을 드리기 시작하였고, 어려움 가운데도 앞뒤 재지 않고 선교에 힘썼던 그 무모함이 교회가 부흥하게 된 축복의 통로였다고 박중식 원로목사는 고백한다.

이후 새중앙교회는 1997년 6월 벽돌 공장이었던 지금의 부지에 예배당을 옮기고 포일과 평촌과 산본 성당을 하나로 모아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후 증개축을 거쳐 지금의 5층 규모의 본당이 완성되었다.

그러한 교회건축의 과정 중 새중앙교회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었다. 바로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관을 만드는 일이었다. 2003년 본당 우측의 3,4층에 선교 최전방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관을 만들어 선교사들을 섬기기 시작했다.<sup>34</sup> 선교관에 입실하는 선교사들에게는 모든 비용을 무료로 숙식과 편의시설, 교회 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렇게 10여년을 본당 선교관을 운영하다가 2015년 7월 1일 지금의 선교센터를 신축하여 재개관 하게 되었다. 지금의 담임목사인 황덕영 목사가 당시에는 선교 총괄 담당으로 사역하던 시기로, 박중식 원로목사와 더불어 선교사들만을 위해 구별된 공간을 마련해 섬기고자 한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으며,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열매 맺은 감동의 시간이었다.<sup>35</sup>

뿐만 아니라 새중양교회는 평신도 성도들의 사역으로 부흥해온 교회이다. 복음을 전하는 기술을 배우고, 현장에서 실습하는 전도학교, 다른 이들의 발을 만지며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발사랑선교회, 말씀을 듣고 과마하는 이미용선교회, 영육을 함께 치료하는 의료선교회, 법은 가깝다는 슬로건으로 사역하는 법률선교회, 운동 안에 복음이 있다는 레포츠선교회, 우리는 예수님의 봉어빵이라는 고백과 함께 봉어빵을 구우며 전도하는 봉어빵 전도대,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로 선교하는 비즈니스선교회<sup>36</sup> 등 새중양교회는 평신도의 은사가 선교회의 사역이 되었다.

또한 새중양교회는 교회의 역사와 함께 외국인 선교회도 설립되고 부흥해왔다. 현재 새중양교회는 몽골선교회, 베트남선교회, 북한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중국선교회, 중국동포선교회의 7개국의 외국인

<sup>34</sup> 황덕영, 편, 40 새중양교회 이야기 선교행진(경기: 글로벌 제자훈련원, 2018), 189.

<sup>35</sup> 황덕영, Ibid., 189.

<sup>36</sup> 박중식, 편, 30 새중양교회 이야기(경기: 로렘나무 아래서, 2013), 55. 30 새중양교회 이야기는 새중양교회의 30년사를 기록한 책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선교회의 이름은 30 새중양교회 이야기에 사용한 이름과 수식어를 참고하였다.

선교회를 통해 이주민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sup>37</sup>

그러므로 새중앙교회의 부흥은 선교적 부흥이다. 새중앙교회가 부흥하면서, 새중앙교회를 통한 선교도 부흥하고 있는 것이다.

#### 1) 새중앙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목회전략

##### ‘비전 백천만’

1983년 개척한 새중앙교회는 설립과 동시에 비전으로 삼은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근거로 삼아 가장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비전으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마련하였다.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세가지 사역 중 특히 새중앙교회가 힘을 모아 발전시킨 분야가 ‘전파하는 교회’다. ‘전파하는 교회’란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대강령을 실천하는 비전이다. 현재도 ‘전파하는 교회’로서 새중앙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2001년에는 ‘1기 비전 백천만’을 선포하였다. 1997년 현재의 평촌 예배당으로 이전한 후에도 교회가 부흥한 것은 전도와 선교에 힘썼기 때문이다. 제1기 비전 백천만은 ‘1백 명의 주일 전도대, 1백 개의 복한 교회 설립’ ‘1천 명의 성가대, 1천 개의 중국 교회 설립’ ‘1만 명의 태신자를 품고 1만 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 1만 개의 선교 헌금 구좌’를 의미한다.

<sup>37</sup> 새중앙교회 홈페이지 주보를 참고하라. <https://www.sja.or.kr/Board/Detail/55/42317>

2006년에는 ‘2기 비전 백천만’ 을 선포하였다. 2기 비전 백천만의 특징은 모든 면에서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이었다. 비전 백은 ‘1백 개의 지교회 설립’ 비전 천은 ‘1천 개의 세계 교회 설립’ 비전 만은 ‘1만 명의 선교사 파송’ 이다.<sup>38</sup>

2019년에는 3기 ‘가서 제자 삼으라’ 의 비전을 선포하였다. 이 때부터 현재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는 2025년 현재까지 새중양교회의 표어로 사용되고 있다. 교회가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선교의 한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부터는 ‘TARGET 2030 가서 제자 삼으라’ 는 표어를 사용하고 있다. 2021년부터 10년이 선교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2030년까지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시기를 거치며 기존의 선교 비전은 오히려 새로운 관점을 통해 실천의 방향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삶의 현장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천적 접근이 가능해 졌다. 이후 매해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설정된 표어인 ‘TARGET 2030 2022: 가서 제자 삼으라’ 는 현재 ‘TARGET 2030 2025: 가서 제자 삼으라’ 로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선교적 비전을 계승하고 있다.

#### ‘NEW CENTER 비전’

전도와 선교는 새중양교회 설립 이후 40년 동안 끊 없이 이어져 온 가장 큰 사명이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프로그램이 제자훈련과 기도사역을 근간으로 이루어졌으며 또 이루어지고

---

<sup>38</sup> 황덕영, *op. cit.*, 13.

있다. 지난 40여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바르게 걸어올 수 있었던 배경이 여기에 있다.

2019년 8월 전교인 영성수련회를 통해 선포된 ‘NEW CENTER’의 비전은 지난 30년 간 선교의 방향을 잡아 준 ‘비전 백천만’과 ‘가서 제자 삼으라’를 구체화 하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였다. 교회가 설립된 이래 뿌리내려 온 다양한 사역들이 NEW CENTER의 비전 아래 체계성과 적극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써 2019년 이후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선교적 교회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이 비전이 코로나19 발생 전에 선포되었다는 것은 새중앙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믿는다.

NEW CENTER의 CENTER는 하나의 단어를 표현하지만, 철자마다 각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먼저 C는 Celebration Worship의 약자로 ‘거룩하고 열정적인 예배’를 뜻한다. 예배는 의무와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숙제가 아니고 기쁨과 사모함으로 모이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배가 축제가 되려면 한 주 동안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철자인 E는 Evangelism & Mission의 약자로 ‘복음의 전진을 위한 전도와 선교’를 뜻한다.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의 증인 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성도는 아웃리치를 통해 전도와 선교를 실천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 철자인 N은 Nuclear Ministry의 약자로 ‘주 안에서 회복이 있는 소그룹’을 의미한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 리서치 기관인 바르나 액세스(Barna Access)가 2020년 5월 미국 교회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약 50%의 성도는 ‘기도와 감정적 위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44%의 성도는 ‘성경 주미심의 격려와 희망’, 33%의 성도는 ‘공동체의 유대감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sup>39</sup>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 가정과 구역 그리고 삶이 선교의 현장인 비전 캠퍼스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소그룹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철자인 T는 Training for Discipleship의 약자로 ‘복음의 엔진인 제자훈련’을 의미한다. 제자훈련은 넓은 의미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포함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을 의미한다. 올라가는 훈련이 아니라 반대로 내려가는 훈련, 섬기는 훈련, 생명을 나눠주는 훈련이다. 제자훈련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삶에서 자아가 죽어야 한다. 제자훈련은 결코 유행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 없으며,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양육의 철학 또는 양육 메커니즘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훈련과 양육의 목적을 평신도를 위한 사역에서 평신도에 의한 사역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sup>40</sup>

다섯 번째 철자인 E는 Education for Next Generation의 약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오늘 날 다음 세대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청소년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교회에서 하는 여름성경학교, 문학의 밤, 수련회, 부흥회 등에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신앙을 갖게 된 아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됐다. 오늘 날 젊은 세대는 다른 종족이다. 마크 프렌스키(Mark Prensky)는 이들을

<sup>39</sup> 김지훈, “5장 소그룹을 통한 목회 상담과 돌봄 사역” in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 이상훈 편저(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21), 113.

<sup>40</sup> 이정엽, ‘4장 본질에 충실한 양육과 제자훈련 “in”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 “ 이상훈 편저(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21), 101.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라는 말로, 조쉬 스피어(Josh Spear)는 ‘본 디지털(Born Digital)’ , 즉 디지털로 태어난 세대라고 표현했다.<sup>41</sup> 너무나도 달라진 세대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 없다. 앞으로 살펴볼 새중앙교회의 선교적 부흥은 다음세대도 그 주역이다. 다음 세대의 범위는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 가는 교회학교 뿐 만 아니라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실버 세대까지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철자 R은 Reformation & Revival의 약자로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개혁과 부흥’ 을 의미한다. 개혁은 회복을 의미하고,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하며,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다. 이 개혁과 부흥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공동체로 확산되어야 한다.

#### ‘창조, 거점, 연합, 미래’

새중앙교회는 4가지 사역전략이 있다. 바로 창조·거점·연합·미래가 그것이다. 창조적 사역을 이루고, 모든 성도와 공동체가 복음의 거점이 되며, 거점이 서로 연합하고, 미래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창조사역은 복음 전파에 관하여 교회가 재창조를 시도하며 사역을 펼치는 것을 뜻한다.<sup>42</sup>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sup>41</sup> 이상훈, ‘8장 Re-Connect: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원리 “ in ”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 “ 이상훈 편저(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21), 187.

<sup>42</sup> 황덕영, op.cit., 23.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sup>43</sup>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역사를 자신의 고향을 떠나 지시할 따응로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다. 창조사역의 기본적인 의미는 익숙한 것을 떠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익숙한 것을 떠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나’는 새로운 복음의 거점이 된다. 예배와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서의 거점사역은 ‘나’를 거점으로 하여 시작된 선교가 가정, 이웃, 열방에까지 확장되어 나간다는 의미이다. 거점에는 3가지 축이 있다. 지역적 거점, 영역적 거점, 세대적 거점이다. 지역적 거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가정이다. 영역적 거점은 은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리더십의 자리 등 각자의 사명대로 세워진 조직 내에서 팀워크를 발휘하여 사역을 펼쳐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적 거점은 각 세대와 직업 등이 거점이 되어 사역을 펼치는 것을 뜻한다. 이 세 가지 선교의 거점을 찾아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 활동이 확장되어 간다는 개념이다.<sup>44</sup>

연합사역은 지역적 거점, 영역적 거점, 세대적 거점이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과 기관과 공동체가 각각 부여 받은 은사들을 연합하여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각각의 거점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복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이 연합하는 것은 선교의 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미래사역은 다가올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감당해야 하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새중양교회의 선교적 교회의

<sup>43</sup> 창세기 12장 1절.

<sup>44</sup> 황덕영, *op. cit.*, 24.

목회전략에서 미래사역은 다음세대 사역, 실버세대 사역, 가정 사역, 통일한국 사역, 세계선교 사역이 있다.

창조·거점·연합·미래사역은 새중양교회가 선교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사역전략이다. 그리고 창조·거점·연합·미래사역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겸손’과 ‘섬김’이다. 선교적 거점이 교만하고 이기적이라면 선교적 확장은 불가능하다. 창조적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이웃들에게 겸손해야 한다. 익숙한 곳을 떠나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교만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살게 되면, 오히려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선교적 거점으로서의 성도가 교만하고 이기적이면, 연합사역은 불가능할 것이다.

## 2) 선교적 자원으로서의 선교적 교회의 부흥 “돌봄의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에는 선교적 성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의 모든 성도는 선교적 자원이 된다. 그리고 선교적 자원으로서의 성도들은 ‘돌봄’이 필요하다. 새중양교회의 성도들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선교적 돌봄을 받는다.

## 제자훈련

새중양교회는 목회 초기부터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사역을 진행하였다. 새중양교회의 제자훈련은 초기부터 2014년까지는 사랑의 교회에서 발행하는 제자훈련 교재를 사용하였다. 이 시기에도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들은 선교적 자원으로서의 말씀의 돌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현재 담임목사인 황덕영 목사가 집필한 제자훈련 교재를 사용하고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새중앙교회의 제자훈련 과정은 다음과 같다.<sup>45</sup>

- 새가족반

1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내용 : 예수님의 인성 / 예수님의 신성 / 나눔

2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내용 : 예수님이 죽으심 / 예수님의 부활하심 / 예수님의 승천하심 / 나눔

3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내용 : 영생의 근원 / 영생을 얻는 방법 / 영생의 확신 / 나눔

4과 교회

내용 :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 교회가 하는 일 / 새중앙교회의

비전 / 나눔

5과 예배

내용 : 참된 예배 / 영적인 예배 / 나눔

- 성장반

1과 새로운 생활

<sup>45</sup> <https://www.sja.or.kr/Page/Index/105> 새중앙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내용 : 옛 생활 / 새 창조 / 나눔

2과 영적 성장의 삶 1. 말씀

내용 : 하나님의 말씀 / 말씀을 대하는 태도 / 나눔

3과 영적 성장의 삶 2. 기도

내용 : 기도의 시간과 장소 / 기도의 자세와 내용 / 나눔

4과 제자도 1

내용 : 그리스도께 순종 / 하나님의 말씀 / 기도 교제 증인의 삶 / 나눔

5과 제자도 2

내용 :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 제자의 삶 : 지상명령 / 나눔

6과 하나님의 뜻 알기 1

내용 : 예수님 본 받기 /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들 / 나눔

7과 하나님의 뜻 알기 2

내용 :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들

8과 전도

내용 : 복음 전도 / 나눔

9과 교회

내용 : 지역 교회 / 나눔

10과 영적 승리의 삶

내용 : 유혹은 반드시 온다 / 당신은 승리할 수 있다.

- 제자반

## 1권 제자훈련 터 다지기

내용 : 1. 나의 신앙고백 2. 거듭난 인생 3. 복음의 능력 4. 영적 성장의

길

## 2권 성부 하나님(하나님)

내용 : 1. 창조주 하나님 2. 전능하신 하나님 3. 목자 되신 하나님 4.

사랑의 하나님

## 3권 성자 하나님(예수님)

내용 : 1.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2. 예수님의 사역 1)기적 3. 예수님의 사역 2)고치심 4. 예수님의 사역 3)살리심

## 4권 성령 하나님(성령님)

내용 : 1. 오소서, 성령님! 2. 성령충만 1) 3. 성령충만 2) 4. 보혜사  
성령님

## 5권 제자도 1

내용 : 1. 제자의 길 2. 추수할 일꾼 3. 한 영혼 4. 거룩한 산 제물

## 6권 제자도 2

내용 : 1. 사랑으로 하나되는 가정 2. 부모의 사명 3. 자녀의 사명 4.

뿌리 깊은 신앙

\*훈련 기간 중 단기 전도학교 실시

- 사역자반

1권 제자도(교회1)

내용 : 1. 사랑 공동체 2. 예배 공동체 3. 섬김 공동체 4. 전도 공동체  
2권 제자도(교회2)

내용 : 1. 기도 공동체 2. 믿음 공동체 3. 선교 공동체 4. 부흥 공동체  
3권 사명자의 영성

내용 : 1. 전적으로 헌신하라 2. 치유를 소망하라 3. 사명에 도전하라 4.  
능력을 갈망하라

4권 사명자의 삶

내용 : 1. 믿음으로 기도하라 2. 말씀에 순종하라 3. 사랑으로 목양하라  
4. 복음을 전파하라

5권 사역의 현장

내용 : 1. 개인의 경건생활 2. 개인의 성경연구 3. 가정 생활 4. 전방위  
사역

6권 사역의 기술

내용 : 1. 전도, 선교, 양육 2. 목양 소그룹 3. 목양 참관 4. 목양 실습  
\* 훈련 중 단기 선교학교 실시

새중앙교회의 제자훈련은 새가족, 성장반의 과정은 교회에서의 교역자  
강의와 평신도로 구성된 지역교사를 통해서 교육받을 수 있다. 형편상 주일 예배  
전, 후에 있는 새가족반, 성장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평일반으로 교회에서  
훈련 받은 지역교사를 통해 훈련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평신도 지역교사를

통해 훈련을 받을 수 있다.<sup>46</sup>

새가족반과 성장반을 수료했다면 누구나 제자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제자반과 사역자반 훈련은 평신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자로 세워지기 위한 기초적인 훈련 단계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제자반 훈련과 다음 단계인 사역자반 훈련은 해마다 함께 시작되고 마친다. 제자반은 주일반·화요일 오전, 저녁반·목요일 오전, 저녁반으로, 사역자반은 주일반·화요 오전, 저녁반으로 구성되어 있다.<sup>47</sup>

새중앙교회는 선교적 자원으로서 성도들을 제자훈련을 통해 훈련한다. 새중앙교회 제자훈련은 단순히 성경공부의 시간이 아니다. 성경의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수업은 강의실에서 진행하지만, 변화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귀납법 적인 성경공부와 적용을 통해 실제적인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 과정에서 수업보다 중요한 부분이 실습 과정이다.

<sup>46</sup> <https://www.sja.or.kr/Page/Index/105> 새중앙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모임안내

- 대상 : 등록된 모든 새가족
- 기간 : 5주(수시 등록 가능, 순환식 교육)
- 시간 : 주 일 오전 09:40 ~ 10:40(새가족실/대예배당2층)
- 주 일 오후 12:10 ~ 13:10(새가족실/대예배당2층)
- 주 일 오후 14:40 ~ 15:40(새가족실/대예배당2층)
- 평일반 각 지역별로 실시
- 진행 : 오프라인
- 문의 : 031-420-8567
- 내용 : 기독교인의 기본 진리와 교회소개

<sup>47</sup> 황덕영, *op. cit.*, 48.

성도들은 실습과정을 통해 배움 뿐 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또 선교자원으로서 실제적으로 훈련을 받게 된다.

### 선교훈련

새중앙교회의 성도들이 선교적 성도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말씀의 돌봄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실제적인 선교적 삶의 훈련은 선교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 선교주일

새중앙교회는 선교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선교적 교회로서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다. 이것은 말이나 구호가 아니다. 새중앙교회에는 선교주일이 따로 정해져 있다.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새해 첫 주는 선교주일로 보낸다. 연초에 올려드리는 일종의 선포 의식으로서 선교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로, 선교를 그 어떤 사역보다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의미다. 하나님은 선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선교를 위함 이었고<sup>48</sup>,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선포하신 지상명령<sup>49</sup>도 바로 선교이기 때문이다.<sup>50</sup>

새해 첫 주 예배를 선교주일로 드리는 것은 한 해를 선교적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있다. 그래서 선교주일에는 선교 헌신을 작정한다. 새중앙교회의 성도들이

<sup>48</sup>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sup>49</sup> 마태복음 28장 18-20절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sup>50</sup> 황덕영, *op. cit.*, 184.

선교적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배가 선교 작정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새 해 첫 주 예배를 드리며, 선교적 삶을 작정하고 결단하게 된다. 다른 어떤 배움과 구호보다 선교주일 예배는 성도들에게 선교적 삶을 헌신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2018년 첫 주일에 선교주일로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선교주일에는 선교부와 외국인선교회의 모든 스태프들과 교역자가 각각의 전통복을 입고 특송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리고 선교주일에 성도들은 선교와 관련하여 세 가지 헌신을 작정한다. 첫째가 선교 헌금에 관한 작정이다. 선교에는 마음을 담은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로 선교를 후원하는 방법으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함께 동참하는 헌신이라고 볼 수 있다.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라면 1년 동안 선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헌금을 작정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선교 훈련에 관한 작정이다. 새중앙교회는 단기선교학교, 전문인 선교훈련인 SMTC, 통일선교아카데미 등 선교에 관한 다양한 배움의 장이 마련되어 있다. 열정과 재정 만큼이나 중요한 선교의 요소로 선교에 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선교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지킬 수 있다. 셋째는 선교 봉사에 관한 작정이다. 선교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복음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개념이 아니다. 선교적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라면 선교를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선 새중앙선교센터에서 선교를 위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선교사들을 섬기는 선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다. 객실청소, 세탁물 관리, 조식 봉사, 부띠끄실 봉사, MK사역, 선교센터 중보기도 등 수 많은

분야에서 봉사자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선교회의 스태프로 봉사할 기회도 있다. 다문화 가정을 섬길 수도 있고,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도 있으며, 외국인 성도가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도 있다.<sup>51</sup>

이렇듯 새 해 첫 주일에 드리는 선교주일 예배는 단순히 하루를 지켜 예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물질과 훈련과 봉사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 한 해를 실제적인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 SMTC

새중앙교회의 많은 선교훈련 중에 하나만 소개한다고 하면, 단연 SMTC 훈련을 꼽는다. SMTC는 Seajungang Missionary Training Center의 약자로 문자 그대로 새중앙 선교훈련센터를 의미한다. 2006년에 처음 SMTC 제1기를 배출한 이후로 지금까지 매 해 한두차례의 훈련을 진행해오고 있다. 2025년 3월 현재 제 21기 훈련생을 모집 중에 있다. SMTC는 단기선교학교를 수료한 성도들이 신청하여 훈련받을 수 있다.

SMTC 훈련의 목적은 성도들의 영적 회복과 성숙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있다. 궁극적으로, 목사나 선교사의 신분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사역할 전문인 선교사, 한국 내 이주 노동자와 기타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할 전문인 선교사 등 한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선교 전문가와 일꾼들을 교육하고 양성한다. 더 나아가 ‘나가는

---

<sup>51</sup> 황덕영, Ibid., 185-186.

선교사’ 못지않게 중요한 ‘보내는 선교사’에 대한 교육 역시 놓치지 않는다.<sup>52</sup>

2019년 12월 전 세계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바로 코로나19 상황이 된 것이다. 코로나19는 교회에도 위기를 가져왔고, 선교지에도 큰 위기를 가져왔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뒤로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야 했고, 많은 선교사역과 후원들이 취소되거나 위축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 시기에 전 세계와 한국교회 역시도 선교의 역사가 멈추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다. 코로나19의 초기를 지나 2021년부터는 위드 코로나19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중앙교회 선교부는 대내적으로 기도와 재정비에 힘썼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선교 사역 기관 및 선교 전문가와 연합하여 전략 연구에 집중했다. 재개된 선교 훈련 사역의 핵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의 결합이었다. 이른바 ‘올라인 콘텐츠’다. 먼저, 온라인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줌’,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행했다. 특별한 것은 강의 시청 뿐만 아니라 질의응답, 과제물 점검 등 훈련 프로그램의 기능을 온라인에서 구현하였다.<sup>53</sup>

하지만 이 시기에는 SMTC 훈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현장훈련을 코로나19의 상황으로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갈 수 없는 해외현장훈련을 대신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국내 주요 선교거점을 중심으로 탐방하며 선교거점을 리서치 하고 개인의 선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교훈련은 멈추지 않았다.

---

<sup>52</sup> 황덕영, Ibid., 63.

<sup>53</sup> 황덕영, Ibid., 66.

### 통일선교아카데미

새중앙교회는 비전 백,천,만<sup>54</sup>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 비전 백, 천, 만에서 백은 백 개의 북한교회를 개척하자는 목표이다. 지금은 북한에 교회를 개척할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적 평화통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비전을 선포하고 준비하고 있다.

분단의 상황 속에서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에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은 말 그대로 소망이고 바람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선교회를 중심으로 북한의 현실과 선교적 사명을 갖기 위해 북한선교학교를 지속적으로 열어왔다. 구체적으로 북한을 6개 도로 나누어 비전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역별로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장년교구, 비전공동체, 드림공동체까지 포함하여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sup>55</sup>

통일 선교 아카데미의 시작은 2020년 10월부터이다. 제 5기까지 진행해 온 북한선교학교의 명칭이 6기에 와서 통일비전학교로 변경되었고, 이후 통일선교아카데미 안양,평촌 캠퍼스를 시작하기에 이르렀다.<sup>56</sup>

북한 선교는 그 어떤 선교 영역보다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은 물론이고 현장 체험이 풍부한 강사의 영향력과 비중이 크다. 새중앙교회의 성도들은 북한선교에 대한 목회전략으로 사역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영적 돌봄의 관점에서

<sup>54</sup> 비전 백,천,만은 “백 개의 북한의 교회 개척” “천 개의 세계교회 개척” “만 명의 선교사 파송” 의 비전으로 새중앙교회의 목회 비전이다.

<sup>55</sup> 황덕영, *op. cit.*, 70,71.

<sup>56</sup> 황덕영, *Ibid.*, 72. 본래는 국내외 12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서울 캠퍼스, 분당 캠퍼스, 안양·평촌 캠퍼스, 미주 LA 캠퍼스, 미주 OC 캠퍼스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었다. 그 중에 새중앙교회가 안양·평촌 캠퍼스를 맡아 진행하면서 2020년 제8기 가을학기부터 통일선교아카데미에 동참하게 되었다.

강력한 북한 선교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훈련 받은 성도들이 언제든지 선교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음은 2023년도에 편성된 북한 6개 행정 구역 중보기도 편성표이다.<sup>57</sup>

지역		교구			
		장년	비전	드림·사랑부	외국인선교회
평안도	평양직할시	샘마을, 수원, 분당	2청년	키즈	북한
	남포특별시	꿈마을, 무궁화, 귀인			
	평안남도	호계, 고천			몽골
	평안북도	안양, 동편마을, 덕천마을			
함경도	나선특별시	갈미, 군포, 안산, 군포송정지구	1청년/ 온라인	사랑부	베트남
	함경남도	초원1, 초원2, 향촌			인도네시아
	함경북도	산본			
황해도	황해남도	내손, 서울, 과천	예배	킨더	중국(어린이)
	황해북도	화평, 인덕원대우,			

<sup>57</sup> 2023년도부터 매 년 북한의 6개 도를 교구 별로 제비를 뽑아 1년 동안 기도하고 있다.

		포일			
강원도		비산, 관양			중국(장년)
자강도		한가람, 공작, 예코, 셋별, 관악, 은하수	3청년	유스	중국동포
양강도		목련, 청계, 백운밸리	신혼		일본

### 비전선교사

새중앙교회에는 훈련 받은 제자로서 자신의 삶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 새중앙교회는 세상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비전선교사’ 라고 부른다.

비전선교사이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2020년 6월, 교회 설립 37주년을 맞이하여 교회의 모든 사역의 포커스를 선교에 맞출 때 쯤이다. 이 시기에 새중앙교회의 황덕영 담임목사는 10년 안에 ‘비전 백천만’ 중 ‘만’의 비전을 실현하자는 설계도를 내놓았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목사 선교사, 장로 선교사, 가정 선교사, 일터 선교사 등으로 헌신해야 하며 삶, 일터, 사역 등 자신이 속한 영역 안에서 전방위적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선교적 교회로 선포된 비전을 구체화하려는 교회의 노력에 하나님은 더 구체적인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비전선교사’ 다.<sup>58</sup>

<sup>58</sup> 황덕영, *op. cit.*, 78. 새중앙교회의 ‘비전선교사’는 새가족반,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의 제자훈련을 모두 수료한 성도들에게 임명한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모두 주님의 제자이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제자가 아닌 성도는 없다. 모든 성도가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훈련 받지 못한 제자이고, 둘째는 훈련 받은 제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성도는 선교적 자원으로서의 선교적 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새중양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훈련 받은 성도를 비전선교사로 임명하는 것이다. 새중양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모든 성도를 선교적 성도로 훈련한다. 그 대표적인 훈련이 바로 제자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는 새중양교회의 선교적 자원으로서 훈련을 마치게 되는 것이다.

2020년은 본격화한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멈춘 것처럼 힘든 한 해였지만, 새중양교회는 주저앉지 않았다. 더욱더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모든 성도를 선교적 자원으로 훈련하였다. 이듬해인 2021년 ‘TARGET 2030 가서 제자 삼으라’ 를 표어로 2030년 까지 비전 백천만을 이루고자 하는 원년으로 삼았다.<sup>59</sup>

비전선교사는 선교사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 해석한 개념이다. 성도들은 모두 일상생활 속으로 파송 받았다는 사명을 갖고, 일상 속에서 만나거나 관계 맺는 이웃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향으로 삼는다. 새중양교회는 비전선교사들에게 ‘153운동’ 을 강조하였다. 새중양교회 황덕영 담임목사는 첫 비전선교사를 임명한 2020년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2020년 11월 15일부터 2주간 비전선교사 교육과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153운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53 전도 운동은 1년에 5명을 전도하고 3명을 양육하자는 운동입니다.

---

<sup>59</sup> 황덕영, Ibid., 78.

비전선교사로서 이 운동을 실천하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적어도 3명은 제자훈련과 사역자훈련을 마치고 또 다시 비전선교사로 헌신하게 될 것이고, 새로 세워진 비전선교사가 또 다시 153 전도 운동을 전개하는 식입니다. 비전선교사가 비전선교사를 세워 가는 선순환이 이어지다 보면 10년 안에 ‘비전 백천만’ 중에 1만 명의 선교사 비전이 성취될 것입니다.”<sup>60</sup>

그리고 비전선교사를 임명하고 세상으로 파송하게 된 원년인 2021년에는 908명의 훈련받은 성도들이 비전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았고 2025년 3월 현재 새중앙교회는 3200여명의 비전선교사가 임명을 받아 매 주일 예배를 통해 세상으로 파송받아 선교사적 삶을 살며, 153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 3) 선교적 다양화로서의 선교적 교회의 부흥 “겸손과 섬김의 관점에서”

#### 이웃사랑 나눔잔치

‘이웃사랑 나눔잔치’는 새중앙교회에서 연 2회 진행하는 전도축제 중 봄에 진행하는 전도축제의 명칭이다. 1996년 ‘이웃사랑 큰잔치’로 진행하던 봄 전도축제가 2003년부터는 ‘이웃사랑초청잔치’로 ‘새중앙교회의 4월’ 하면 떠올리게 되는 대표적인 행사가 되었다. 이웃사랑초청잔치는 CCM 가수를 초청하여 찬양예배로 이웃을 초청하기도 하였고, 이웃을 향한 관계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이웃사랑초청잔치에 초대하기도 하였다. 이웃사랑초청잔치는 단계적인 관계전도를 위한 ‘FIVE운동’을 전개한다. 이것은 태신자 한 명을 위해 5번의 접촉점을 만들고

<sup>60</sup> 황덕영, Ibid., 79.

전도하는 전도운동이다. FIVE운동을 진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단계별로 만남을 갖기도 하고, 식사와 차를 대접하기도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렇게 매년 열리는 전도축제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초청을 받게 결신하게 되었는데, 2018년 이웃사랑 초청잔치에는 1700여명이 넘는 새가족이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였다.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매 년 전도축제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왔는데, 2020년 코로나19 상황이 오게 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새중앙교회의 전도는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고, 여전히 대면예배와 전도가 어렵던 2021년 여름에는 전도축제의 기존 이름이었던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이웃사랑 나눔잔치’로 바꾸고 ‘사랑나눔 7운동’을 진행하였다. 사랑나눔 7운동은 7개의 사랑나눔 실천을 통해 대면하여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지역사회와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수단이 되었다.

첫 번째 사랑나눔은 ‘지역상권 사랑나눔’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교회 성도들의 사업장 지도를 작성한 후 교회와 지역교구의 성도들이 지역 내의 사업장을 찾아 힘을 보태는 사역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어려운 소상공인의 사업장에서 자체적인 쿠폰을 발행하여 성도들에게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사랑나눔은 ‘지역환경 사랑나눔’으로, 교회와 지역교구의 거리 등을 청소하며 사랑을 나누는 실천이었다. 지역환경 사랑나눔을 실천할 때에는 한 손에는 전도티슈를 들고 한 손에는 쓰레기를 줍는 집계를 손에 들고 지역의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새중앙교회의 성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지역거리 사랑나눔’ 으로, 성도들이 당시의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서 사랑나눔 행사를 열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역을 하였다. 봉어빵 전도대와 함께 봉어빵을 구워 나누고, 빵튀기와 솜사탕을 만들어 지역 거리에서 무료나눔하는 행사를 가졌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실외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 야외의 공원과 산책로 등에 무인으로 물과 전도용품 등을 나누는 테이블을 설치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랑나눔도 실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실내에서 하는 활동에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문화, 예술 공연도 할 수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역거리 사랑나눔을 통해 야외 음악회와 연주회등을 열어 답답한 이웃에게 문화공연으로 사랑을 나누며 이웃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네 번째는 ‘취약계층 사랑나눔’ 으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나눔을 실천하였다. 어떤 교구는 ‘반찬 사랑나눔’ 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였다. 코로나19로 외출도 어렵고 반찬을 구입해 만들어 먹기도 힘든 독거노인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다. 또 어떤 교구는 외국인 선교회에 속한 어려운 외국인 성도들을 찾아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특별한 기억은 북한 선교회에 속한 탈북민 성도의 가정을 방문한 일이었다. 그 당시에도 한창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통해 사랑나눔 7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북한선교회와 연합하여 탈북민 성도이 가정을 방문하여 집안을 수리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교구 식구들의 물질의 후원을 통해 살림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다섯 번째는 ‘공공기관 사랑나눔’ 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사랑을 나누는 사랑나눔을 실천하였다. 공공기관 사랑나눔을 통해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지역 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와 경비원들에게 간식과 선물을 전달하며 사랑나눔을 실천하였고, 환경미화원과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시원한 물과 간식들을 전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을 진행하였다.

여섯 번째는 ‘미자립교회 사랑나눔’ 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예배가 어려워지고, 온라인예배로의 전환도 쉽지 않았던 미자립, 개척교회에 사랑나눔을 실천한 사역을 진행하였다. 이전에 국내 아웃리치를 통해 방문하였던 교회들을 먼저 찾아 필요를 나누고, 사랑나눔을 실천하였다. 또한 미자립교회 사랑나눔을 통해 온라인예배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는 목회자들에게 온라인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강의와 장비를 제공하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가 없어 교회운영이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 교구 성도들이 모든 헌금과 물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미자립교회 뿐 아니라, 코로나19 기간에도 해외 선교를 실행한 사례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가는 일에 제약이 많아지자 헌금을 모아 해외 선교지의 건축을 돕기도 하였다.

필자가 섬기던 교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구에서 직접 선교관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는 새중앙교회를 포함한 국내의

선교센터와 선교관들이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19로 당장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운영하던 선교관들도 문을 닫아 오갈 곳 없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입국하게 되는 선교사 가정을 알게 되었고, 교회의 허락을 얻어 교구에서 인천에 있는 작은 빌라주택을 얻어 선교사 가정이 묵을 수 있는 가정집 형식의 선교관을 운영하였다. 교구에서 직접 선교관을 운영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먼저는 집이 필요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침 세입자가 없어 비어 있는 집이 있는 성도를 알게 되었다. 사랑나눔 실천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었고, 흔쾌히 집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가정 집은 한 명만 살아도 살림을 위한 모든 물품이 필요하였다. 가정집과 같은 선교관을 만들기 위해 교구의 모든 성도들이 물품으로 물질로 후원에 동참하였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마련된 교구 선교관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여러 선교사 가정이 머물게 되었다. 교구 선교관을 운영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는 교구의 전도와 선교의 실천에 있어서도 큰 유익이 있었다. 선교관을 정비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성도와 팀이 방문하여 집을 수리하였다. 선교사 가정이 입실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한데, 성도들이 직접 담근 김치와 반찬을 냉장고 채우기도 하였다. 그래서 교구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교사들을 섬김으로 선교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재능기부 사랑나눔’으로 성도들의 재능을 나누며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사역이다. 여러 교구와 새중앙 상담센터가 연합하여 많은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자체적인 문화센터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성도들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 상담, 미술, 음악, 꽃꽂이, 과외 등의 과목을 개설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이웃들에게 재능을 기부하여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을 통해 ‘지역거리 사랑나눔’ 과 함께 길거리에서 음악회를 열기도 하고, 요리에 재능이 있는 성도들은 음식으로 이웃을 섬기기도 하였다 .

코로나19 기간은 전도와 선교가 닫힌 기간이었다. 하지만 새중앙교회의 선교사역은 더욱더 다양한 전략과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었다.

#### 기대, 봄 행사

2023년의 봄은 코로나19가 끝나고 다시 복음과 선교의 문이 열리는 첫 계절이었다. 새중앙교회는 이웃사랑을 앞둔 토요일에 교회 앞마당의 주차 공간을 모두 비워 ‘기대, 봄’ 이라는 주제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비워진 교회 앞마당은 아이들을 위한 대형 에어바운스와 다양한 야외게임을 하는 게임 존,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는 공연 존,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 존과 식사자리가 설치되었다. 각 교구목사의 이름을 패러디 하여 만든 이름의 음식부스가 설치되었다.

‘선일분식’ , ‘민이네 핫도그’ . ‘기백 쌀국수’ , ‘태용오빠 부침개’ , ‘곤다방’ 등 참신하고 다양한 이름의 음식부스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 조기에 음식이 완판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그리고 행사를 찾은 이웃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 존을 마련하였다. ‘기대, 봄’ 행사는 성도들 뿐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였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찾아와 축제를 즐기는 현상이 되었다. 찾아가는 전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대, 봄’

행사는 지역의 믿지 않는 이웃들이 직접 교회로 찾아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복음 준은 세대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자리를 지키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 새생명축제

새중앙교회의 가을은 새생명축제라는 이름으로 전도축제를 연다. 1996년에 시작된 ‘이웃사랑 큰잔치’가 2003년에 이르러 ‘이웃사랑 초청잔치’와 ‘새생명축제’로 역할이 나누어진 후 지금까지 1년에 두차례 전도축제를 진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쓴다.

새생명축제도 이웃사랑 나눔잔치와 같이 FIVE 운동을 진행한다. FIVE 운동 초기에는 1단계 태신자 카드 작성하기, 2단계 태신자 품고 기도하기, 3단계 태신자와 관계 맺기, 4단계 태신자 초청하기의 과정으로 4단계로 진행하였다. 그 이후 2016년부터 ‘FIVE 운동’으로 변화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태신자를 대상으로, 다섯 번 이상의 접촉을 통해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교체하며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다. 교구마다 다양하고 실용적인 선물을 준비하여 태신자를 찾아가 축제 참여를 독려한다.

새생명축제는 10월에 열리지만, 본격적인 전도축제는 9월 둘째 주 예배시간에 ‘태신자 작정주일’을 통해 시작된다. 새생명축제는 전 세대가 함께 준비하는 전도축제이다. 장년교구와 비전공동체, 드림공동체, 외국인선교회를 아우르며 전 세대가 같은 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새 가족을 맞는다.

매 해 가을마다 이어져온 새생명축제를 통한 전도축제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가을에는 달랐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모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도축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전도축제를 쉬어도 누구도 뭐라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중앙교회는 창조적 사역을 통해 전도와 선교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2020년 가을은 새생명축제를 “전교인 1·1·1 살리기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였다. 전교인 1·1·1 살리기 운동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첫 번째 1은 한 가정, 두 번째 1은 한 지역, 세 번째 1은 한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우리 가정과 지역, 더 나아가 세계 열방까지 품고 복음과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코로나19가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새중앙교회는 오히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고, 더욱 다양하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첫 번째 1은 ‘한 가정 살리기 운동’이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땅 끝까지’라는 말씀은 자기 삶의 자리를 근본으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 간다는 의미다. 그래서 그 출발점인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별히 사회적으로는

‘비대면’의 상황이었지만, 가족들은 ‘대면’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한 가정을 살리는 운동을 진행하였다. 회사의 업무는 재택근무로 전환되고,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며 가족들은 가정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많아지게 되었다. 가족들만의 시간이 더 많아진 만큼 더 화목하고 더 사랑하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예배하기에 좋은 환경이 된 것이다. 코로나19의 위기가 가족전도와 가정예배의 기회가 된 것이다.

전교인 1·1·1 살리기 운동에 참여한 가정은 비전캠퍼스 가정예배를 드리는 곳을 인증하는 마크를 교패 옆에 붙여 가정예배의 선교적 거점 가정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코로나19가 오히려 가정이 예배의 거점이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가정 내 불신자를 생각하면 흔히 믿지 않는 부모님을 떠올리게 되지만, 한 통계에 따르면 부모 세대의 복음화율은 21%인 반면 청소년의 복음화율은 3.8%에 못 미친다. 부모 세대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말이다.<sup>61</sup>

두 번째 1은 ‘한 지역 살리기 운동’이다. 교회가 속한 지역에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의미로, 지역 사회의 회복에 동참하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때 교회에서 준비한 것이 ‘복음박스’이다. 전교인 1·1·1 살리기 운동을 안내하고자, 탁상용 달력 형태의 매뉴얼 북을 전달하였다. 매뉴얼 북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마다 QR코드를 삽입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보며,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황덕영 담임목사의 복음메시지 영상을 통해 누구나 쉽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였다. 또한 발사랑선교회에서 만든 발마사지 영상을 따라 가족과 이웃에게 발마사지를 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였다. 교구 목사들의 재미 있는 동영상들 통해 많은 성도들에게 웃음을 전하였다. 이 외에도 태신자에게 커피 쿠폰 보내는 방법, 찬양 영상을 보내는 방법 등 이웃과 태신자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 영상을 보면서 전도와 선교를 실천할 수 있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비대면 상황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태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였다.

세 번째 1은 ‘한 나라 살리기 운동’이다. 가정과 이웃을 넘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계와 열방의 영혼들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살리는

---

<sup>61</sup> 황덕영, Ibid., 129.

운동이었다. 한나라 살리기 운동은 장년교구, 비전공동체, 드림공동체, 외국인선교회에 이르기까지 담당하는 나라가 정하였다. 담당하는 나라가 정해지면 기도하며 선교지에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후원하였다.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선교지에 기도와 물품을 보낸 것이다.

필자가 섬기던 교구에서는 전교인 1·1·1 살리기 운동을 통해 선교사 초청 온라인 선교대회를 열었다. 마침 한국에 머물던 선교사를 초청하여 선교지 소식과 기도제목 등을 나누며 직접 갈 수 없는 선교지의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 선교지의 기도제목을 위해 교구의 성도들과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라인 선교대회를 통해 선교지의 필요를 알게 된 교구의 성도들은 물질과 물품으로 후원하며 선교지를 위해 헌신하였다.

### 사랑의 천사박스

‘사랑의 천사박스’는 성탄절을 맞아 교회 주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준비한 식품을 담은 선물박스를 의미한다. 사랑의 천사박스를 전달하며,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성육신 하여 오신 성탄절의 의미를 담아 교회가 위치한 주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다. 사랑의 천사박스는 천사가 주는 선물의 이미지를 의미할 뿐 아니라, 숫자 1,004개를 의미하기도 한다. 사랑의 천사박스의 상자는 설탕, 고추장, 김, 카레, 햄, 고등어 통조림, 식용유, 인스턴트 커피 등의 물품으로 가득 채웠다. 사랑의 천사박스를 전달한 첫 해인 2019년에는 그래서 1,004개의 박스를 목표로 성도들이 박스를 만들어오기 시작했다. 교회에서 제작한 박스를 집에 가져가 성도들이 가정 별로

마트에서 해당 물품들을 구입해 박스를 직접 만들었다. 수많은 성도들이 사랑의 천사박스를 만드는데 동참해 지역 작은 마트의 물품들이 동이 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렇게 모아진 사랑의 천사박스는 새중앙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안양시청과 주변의 의왕시청, 군포시청에 각각 400개 씩 전달되었다. 시청 외에도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전달이 되었다. 사랑의 천사박스는 현재까지도 매 년 성탄절을 앞두고 진행하고 있다. 2004년 성탄절에는 5,000개 이상의 천사박스를 만들어 안양시청, 의왕시청, 군포시청에 각각 1,004개 씩 전달하였으며, 형편이 어려운 성도와 이웃, 그리고 선교적으로 협력관계에 있는 통일촌 마을까지 다양한 곳에 전달하였다.

사랑의 천사박스는 그 무게와 수량만큼 전달 하는데는 큰 수고가 필요한 일이었다. 성탄절을 몇 일 앞두고 각 시청에 전달하였기 때문에 교회에 쌓인 박스를 차에 올리고, 시청으로 이동하여 차에서 내리는 일은 추운 날씨와 박스의 무게로 힘든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힘을 모아 인간 띠를 만들어 박스를 옮겨 차에 싣고 내리는 일을 하며 사랑을 실천하였다. 이렇게 전달된 박스는 시청을 통해 각 시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었고, 박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교회 주변 아파트 경비실과 경로당, 외국인선교회 쉼터, 새중앙선교센터,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 요양원, 수원역 노숙자들에게도 전달되었다. 또한 MZ 안에 있는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마을에도 박스가 전달되었다.

### 전세대 아웃리치

새중앙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그리고 새중앙교회의 전도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전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름 전도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를 방문하여 이름 그대로 전도하기 위한 여행을 다녀왔다. 1991년 안디옥 찬양단을 중심으로 지리산 캠프를 다녀온 것이 전도여행의 시작이었다. 방문한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찬양 집회와 지역전도가 주 사역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1995년 여름, 160여명의 전도팀이 제주도를 다녀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 매 해마다 교구별로 2일에서 4일의 일정으로 전도여행을 다녀왔다. 성도들 대부분이 7월 말에서 8월 초에 있는 여름휴가를 전도여행으로 다녀왔다. 그렇게 2박 이상의 전도여행의 일정은 2008년도부터는 1박 혹은 당일의 일정으로 전도여행을 다녀오는 교구가 많아졌다.

과거 ‘여름 전도여행’의 사역 활동을 살펴보면, 문화, 의료, 이미용, 침술, 한방, 사진촬영, 전도 팀 등의 성도들의 은사와 전문성을 이용한 팀들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2003년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된 여름전도여행에서는 1천여 명의 성도가 참여하였다. 3박 4일의 일정동안 4천8백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 4백여 명이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 당시의 평촌 북지역의 성도들이 찾아간 전라남도 남원 지리산 자락의 월산교회는 49년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워낙 불교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색과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였다. 당시 그 교회는 성도 몇 명과 장로가 인도하는 형편이었으나, 새중앙교회의 여름전도여행 팀을 통해 새로운 목회의 활력을 찾게 되었다. 당시

여름전도여행 축호전도를 통해 30여명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여름전도여행 팀이 돌아간 후 첫 주일에 43명이 출석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그 교회를 담임하던 최상철 전도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감사하였다. 무엇보다 여름전도여행을 통해 지역에서 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 농어촌 교회를 통해 복음의 일을 이어갈 수 있게 하였다.

매 해 여름전도여행에 참여하는 성도는 그 수가 더해져 2006년에는 8개 교구에서 1천3백52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여름전도여행을 진행하였다. 그 해 진행된 여름전도여행을 통해 2천14명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중 1천72명이 영접했다. 매년 여름전도여행을 진행하면서 축적된 전도 노하우와 철저한 준비가 낳은 전도의 열매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3개 교구 5백여명이 충청도 지역으로 당일 전도여행을 다녀왔다. 프로그램은 예전과 같은 전도팀, 찬양팀, 이미용팀, 침술팀 등으로 구성하여 섬김과 전도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대부분 당일 전도여행으로 일정의 변화를 겪게 된다.

2015년 여름전도여행은 “전 세대 아웃리치” 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어 지금까지 당일의 일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아웃리를 진행하고 있다. 전 세대 아웃리치는 2015년 7월에 진행된 새중앙교회 ‘세계 선교영성축제’를 통해 선포된 비전이다. 전 세대란 취학 전 어린이를 비롯한 초·중·고등학생들의 드림공동체와 대학·청년·신혼·예배 공동체인 비전공동체, 그리고 기존의 장년교구를 의미한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새로운 것은 아니다. 비전공동체는 이미 2012년부터 국내·외 아웃리치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년교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도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였다. 또한 선교부는 선교훈련인 SMTC를 통해 해외 현장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국내·외 전도와 선교를 하나의 비전으로 통칭하여 ‘전 세대 아웃리치’의 비전을 선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국내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찾아가 교회를 섬기고, 지역에 복음과 사랑을 나누며 전도하는 것은 동일하다. 오히려 전세대 아웃리치를 통해 세대간에 연합하여 아웃리치를 진행하기도 하고, 국내 전도여행이 중심이었던 전도여행의 방식에서 국내·외 아웃리치로 그 대상이 다양화되었다.

세계선교영성축제에서 전 세대 아웃리치가 선포된 이후 바로 고등부가 중심이 된 ‘러시아 청소년 아웃리치팀’이 러시아로 출발하였다. 러시아 청소년 아웃리치 팀은 MK캠프 비전트립, 현지교회에서의 성경학교 등의 프로그램으로 현지 선교사와 협력하며 7박 8일의 아웃리치를 진행하였다. 이 후에는 새중앙 신문사와 발사랑선교회, 새중앙의료선교회와 같은 기관들도 전세대 아웃리치를 통해 필리핀과 캄보디아에서 해외 아웃리치를 진행하였다. 이전에는 장년교구를 중심으로 진행하던 전도여행의 방식이 전 세대, 전 기관으로 다양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새중앙교회 설립 35주년이었던 2018년에는 국내 30개 지역과 해외 10개국으로 전 세대 아웃리치를 진행하였다. 다른 해의 여름처럼 장마와 폭염과 열대야가 있었지만, 새중앙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전세대 아웃리치를 통해 매 해 여름을 중심으로 미자립교회를 실질적으로 돕는다. 여름이 되기 전 각 교구별로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선정하고, 답사를 진행하여 사역지 리서치를 한다. 이후 교회의 위치, 지역적인 특징, 문제점과 필요한 부분들을 리서치한 후에는 전세대 아웃리치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고, 전략을 수립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세대가 함께 연합하기도 하고, 교회 내 여러 봉사팀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수립하기도 한다. 그렇게 수 많은 미자립교회들과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

새중앙교회의 아웃리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새중앙교회의 모든 사역은 새중앙교회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다. 새중앙교회는 겸손과 섬김으로 세계선교의 마중물이 되고자 힘을 다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네시아와 몽골이다.

해외 단기선교 사역은 일회성으로 지나간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아웃리치는 그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선교팀이 떠난 후에도 현장에서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큰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새중앙교회가 갖추고 있는 많은 사역의 노하우와 선교의 도구들을 통해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확장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샬롬교회의 사례는 새중앙교회의 사역 DNA를 직접 전수한 사례이다. 2014년 12월 18일 새중앙교회와 샬롬교회는 선교협약을 체결하였다. 새중앙교회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샬롬교회가 속해 있는 GGP 교단<sup>62</sup>이 새중앙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으로 훈련 받는다는 것이 협약에 대한 내용이다.

2016년 4월에는 GGP 교단 소속 250여명의 목사들이 제자훈련, 전도훈련, 발지압 관계전도, 큐티학교, 방송·영상 제작 등의 강의를 받으며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새중앙교회 DNA의 핵심인 제자훈련이 전수되었다. 현장에서 제자훈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자훈련 사역에 대한 내용을 경험하고, 교육을 받고

---

<sup>62</sup> GGP 교단은 Gereja Gerakan Pentacosta 교단으로 인도네시아 오순절교단이다.

제자훈련 교사로서의 역량을 갖추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GGP 교단의 총회장은 ‘151비전’ 즉 ‘1개 교회가 5년 동안 1개 교회를 개척하라’ 는 비전을 선포하고 실현해가고 있다.

1천 개의 세계교회 개척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째 나라는 몽골이었다. 2022년 12월 새중앙교회의 제자훈련에 대한 내용을 훈련 받기 위해 몽골 전역에서 현지 목회자들이 울란바토르에 있는 새생명교회로 모였다. 3박 4일의 일정으로 열린 ‘몽골 목회자 제자훈련 집회’ 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행사를 위해 새중앙교회 제자훈련 교재인 『새가족반』 『성장반』 『예수를 따르는 비전의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명의 사람들』 과 황덕영 담임목사의 저서인 『현실을 이기는 복음』 이 몽골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몽골에서 현지 사역자가 목회하는 교회는 700여 개,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는 400여 명으로, 그 중에서 250여명의 목회자가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250여 명으로 가득 찬 교회 본당에서는 쉬는 시간 10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제자훈련에 대한 강의와 집회만 이루어졌다.

2차 ‘몽골 목회자 제자훈련 집회’ 는 2023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어 10여명의 한국 사역자들과 동행한 황덕영 담임목사와 제자훈련원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열었다. 같은 해 여름에는 비전공동체와 SMTC 해외 현장 훈련, 몽골선교회가 몽골 해외 아웃리치를 진행하였다. 몽골의 부흥을 통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중앙 아시아 및 북한 선교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세대 파주 아웃리치

코로나19가 끝나고 엔데믹이 시작된 2023년에는 새중앙교회 40주년을 감사하며 ‘전 세대 파주 아웃리치’를 진행하였다. 파주는 통일대교를 건너 관문점을 지나 북한으로 가는 육로의 가장 북단에 있는 곳이다. 새중앙교회는 통일한국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며 파주 아웃리치를 진행하였다. 장년교구와 비전공동체를 중심으로 파주 지역에 있는 70개의 교회를 찾아가 사랑과 복음을 전하였다. 파주 아웃리치를 통해 다양한 사랑의 나눔과 복음전파가 이루어졌다. 개척교회를 도우며 노후 된 음향 기기와 천정 조명을 교체하여 분위기를 바꾸어 주고, 또 다른 교회는 부침개 전도와 함께 발 마사지 전도, 이미용 전도를 진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2024년도에는 더욱 확장된 ‘전 세대 파주 아웃리치’를 진행하였다. 파주 지역 아웃리치와 병행하여 ‘북한 기독교 총 연합회’ (이하 북기총)와 협력하여 북기총에 소속된 교회들과 연합하여 전 세대 아웃리치를 진행하였다. 필자가 섬긴 교구는 특별한 아웃리치를 진행하였다. 이전과 다르게 당일 두 팀과 1박 2일 한 팀으로 팀을 구성하였다. 1박 2일 팀은 통일 후 북한이 열리고 통일이 되었을 때를 대비한 사역의 일환으로 텐트와 새한반도 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아웃리치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통일이 되면, 봉고차에 텐트를 싣고, 북한으로 가서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준비하는 훈련이었다. 교역자와 성도들 총 15명은 직접 두 동의 텐트를 치고 1박을 하며 통일과 북한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아웃리치를 진행하였다.

선교센터

선교적 교회로서 새중앙교회가 강조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는 겸손과 섬김이다. 전술한 새중앙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모든 사역이 겸손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겸손과 섬김으로 이루는 사역이 있다. 바로 새중앙교회에서 선교센터로 운영하는 ‘KINGDOM MISSION CENTER’ 이다. 20년 전인 2003년에 만들어진 구 선교관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관으로 새중앙교회 선교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구 선교관은 영적 최전방인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머물 때에 쉼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대예배당 3층에 14개의 객실로 시작하였다. 이후 2008년 대예배당 4층을 증개축하여 총 28개의 객실을 만들어 선교관으로 운영하였다. 이후 2015년 7월 1일 4층32개 객실과, 5층 32개 객실 총 64개의 호텔 식 객실을 갖춘 선교센터를 신축하여 재 재관 하였다. 본당 3층과 4층을 사용하던 구 선교관은 편의시설의 부족함과 방음의 문제, 냉, 난방의 문제등이 있었지만, 신축한 선교센터는 선교사들 만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되어, 선교사를 위한 휴식공간과 힐링센터, 의료선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만든 진료실과 약국, 선교사 자녀들이 언제든지 책을 읽고 놀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과 놀이방, 계절이 다른 국가에서 입국한 선교사들을 위해 계절에 맞는 옷을 비치해둔 부띠끄실, 세탁실 등의 마련되었다.

새중앙 선교센터는 겸손과 섬김으로 선교적 교회를 실천해가는 새중앙교회 선교사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선교센터의 시설 뿐 아니라, 새중앙교회 성도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이다. 새중앙 선교센터는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들을 위한 숙박과 식사를 포함한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여 섬기고 있다. 1년

365일 쉬지 않고 제공되는 조식은 선교센터 3층 선교사 휴게실에서 제공된다.

선교사들이 1년 365일 선교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식사는 멈출 수 없다. 그래서 교회의 다른 사역은 휴무일이 있을 수 있지만, 선교센터는 무휴로 진행된다. 명절이 되면, 선교센터의 조식은 더 풍성해진다. 명절음식을 만들어 보내주는 성도들의 섬김으로 평소보다 더욱 푸짐한 명절 식사를 제공한다. 또한 명절임에도 조식 봉사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선교사들의 명절 조식을 위해 섬기고 봉사한다.

한 달에 한 번 주일 오후면 선교사 휴게실은 병원으로 변한다. 의사와 간호사, 약사, 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의료선교회에서 치과, 내과, 정형외과, 한방과 등의 진료를 담당하여 선교사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3층 선교사 휴게실 한 쪽에는 선교사 힐링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힐링센터에는 발사랑 선교회의 교역자와 봉사자들이 선교사들을 섬긴다. 무료 예약제로 운영되는 힐링센터는 선교사들에게 유난히 인기가 많은 장소이다. 발사랑 선교회는 선교사들의 발을 만지며 마사지로 섬길 뿐 아니라, 선교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발마사지 강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64개의 선교센터 객실은 늘 만실로 운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입·퇴실이 이루어진다. 많은 입퇴실로 인해 객실 청소의 손길이 늘 필요하다. 객실 청소로 섬기는 ‘예손’ 팀은 그러한 객실 청소엔 손을 더해 섬긴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비어 있는 선교센터 객실에 가서 선교사들이 머물다 간 곳을 다음 선교사 입실을 위해 청소한다.

이 외에도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선교사들을 섬긴다. 현재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 객실을 청소하는 ‘예손 팀’, 선교센터에 비치된

화분을 관리하고, 옥상의 조경을 관리하는 ‘미화 팀’ . 매일 아침 선교사들의 조식을 담당하는 ‘조식 팀’ , 선교사들의 옷을 책임지는 ‘부띠끄 팀’ , 퇴실 후 교체되는 이불을 공장으로 가져다 주고 가져오는 ‘이불 운송 팀’ ,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섬기는 ‘MK 케어팀’ 이 운영 중에 있고, 선교지에서의 IT 활성화를 위한 ‘IT 팀’ 은 팀원을 모집 중에 있다.

“천국에서 만일 단체상이 존재한다면, 새중앙교회가 받을 것입니다”

퇴실하던 어느 선교사의 한마디에 감동의 깊이가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다. 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센터의 손과 발이 되어 선교사들을 온 몸과 마음으로 섬겨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것이다. 코로나19 기간 중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선교센터의 운영이 중단된 적이 있다. 그 기간을 통해 보수, 정비와 함께 매일 소독과 방역에 집중하며 다시 선교사들을 섬길 수 있기를 교회가 함께 기도해 왔다. 코로나19가 아직 진행중이던 2021년 말, 부분적인 운영을 재개하여 2022년 5월 초부터는 완전히 정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sup>63</sup>

새중앙 선교센터는 현재까지 누적 입실 인원이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13,687명이다. 세계에서 선교사들에게는 가장 유명한 교회가 새중앙교회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중앙 선교센터는 겸손과 섬김으로 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어지는 현장이다.

선교단체와의 동역

새중앙교회의 겸손과 섬김의 사역은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동역으로

---

<sup>63</sup> 황덕영, Ibid., 193.

열매를 맺기도 하였다. 새중양교회는 최근 여러 선교 단체와 선교사들의 모임들과 협력하는 일이 많아졌다. 기존의 교회가 선교단체와 그리 좋은 관계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었다면, 선교적 교회로 선교를 우선시하는 새중양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협력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 결과 교회와 선교단체 사이의 현실적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sup>64</sup>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인 KWMA<sup>65</sup>와 선교 비전을 공유한 것은 새중양교회의 선교 비전의 지경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KWMA가 ‘TARGET 2030’ 운동을 펼쳐 오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 하겠다는 비전을 담은 운동이었다. 선교 비전을 놓고 교회 전체가 기도하던 중에 이 비전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중양교회도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새중양교회는 KWMA가 선포한 10만 명 비전을 본 받아 그 중의 1/10에 해당하는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게 된 것이다. 1만 명의 선교사 파송은 새중양교회의 ‘비전 백천만’에서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만’에 해당하는 비전이다.<sup>66</sup> 여기에서 새중양교회의 현재 비전인 “TARGET 2030 가서 제자 삼으라 ‘는 비전이 탄생하게 되었다.

새중양교회의 겸손한 선교가 실천되는 동역이었다. 새중양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선교를 위한 일이라면, 겸손히 협력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이다.

<sup>64</sup> 황덕영, Ibid., 274.

<sup>65</sup> KWMA는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의 약자이다.

<sup>66</sup> 황덕영, op. cit., 276.

BHS<sup>67</sup>와의 협력도 새중앙교회의 겸손과 섬김의 사역의 결과이다. BHS는 전 세계 10억 인구를 향해 선교의 도전을 펼쳐 오고 있는 선교 단체이다. BHS와의 협력을 통해 새중앙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집회를 열게 되었다. 이 집회에서는 선교에 관해 세계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인물로 평가받는 리더십<sup>68</sup>들과 한국 강사들이 대거 참여해 밤샘 기도회를 인도하였다. 새중앙교회 성도들과 한국의 청년 사역자들, 청년 대표자들, 중보기도자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선교를 위해 기도하였다.<sup>69</sup>

한인세계선교사회인 KWMF와의 협력도 있다. KWMF와의 협력의 결과로 2022년 8월 새중앙선교센터 2층에 KWMF 본부가 문을 열었다. 세계 선교를 위해 KWMF와 협력하는 차원에서 교회에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이다.<sup>70</sup>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선교단체를 섬기면서 얻게 된 결과이다. 45년 동안 사무실이 없이 운영해 오던 KWMF의 임원들은 큰 감동을 교회에 전해왔다.

## B. 새중앙교회의 선교적 성숙

새중앙교회의 성도는 선교적 교회의 성도로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선교적 교회가 성숙하다는 것은 선교적 교회의 성도가 성숙하다는 의미이다. 성도의 삶은 개인의 경건 즉, 개인의 예배, 개인의 기도, 개인의 말씀 생활을 넘어 성도 자신의 삶을 선교적 거점으로 살아가고 있다. 선교적

<sup>67</sup> Billion Soul Harvest의 약자이다.

<sup>68</sup> 이 집회의 강사로, 황성주 박사, 박호중 목사, 황덕영 목사, 조지훈 목사, 고성준 목사 등의 국내 강사와 루이스 부시, 스티븐 무투아, 데이브 김슨, 브라이언 알라리드, 리카르도 루나, 다니엘 판지 등이 해외 강사로 참여하였다.

<http://www.cbntv.tv/m/view.php?idx=8704&mcode=m85jkui> 【2025. 3.10. 접속】

<sup>69</sup> 황덕영, op. cit., 278.

<sup>70</sup> 황덕영, op. cit., 279.

교회의 중요한 의미는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예배당과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는 모든 곳으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모든 민족’으로 가는 것은 단순히 타문화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배 공동체를 떠나 있는 모든 곳이 성도의 선교적 삶의 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현장은 예배자가 있는 예배의 거점이면서, 선교적 대상이 있는 선교의 거점이 되는 것이다.

“성도는 각양 은사와 역할에는 구별이 있을 수 있으나 성결함이나 헌신, 선교활동에 참여하는 일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특권과 권세에 있어서는 어떤 구별도 있을 수 없다”<sup>71</sup>라고 말한 찰스 E. 벤 앵겐의 주장처럼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역할에 따라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 “선교적 성숙도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곳에 선교하고 있는가”와 동시에 “얼마나 많은 교회의 성도가 선교적 삶에 헌신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중양교회는 선교적 성숙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모든 교역자는 선교 동원가이면서 선교 전략가가 되며, 모든 성도가 선교사적 삶을 헌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

<sup>71</sup> 찰스 E. 벤 앵겐, *op. cit.*, 255.

## 1) 선교적 거점으로서의 가정선교

가정은 가장 기초단위의 교회이다.<sup>72</sup> 그리고 가정은 성도가 예배공동체에서 떠나 가장 먼저 가는 현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면, 이 가정은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가장 기초 단위의 선교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정은 선교적 교회의 성도에게는 1차적인 선교현장이 된다.

새중앙교회는 코로나19 시기에 ‘이웃사랑 나눔잔치, 사랑나눔 7운동’ 과 ‘새생명축제 전교인 1·1·1 살리기 운동’ 을 통해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 중 전교인 1·1·1 살리기 운동을 통해 한 가정,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리는 운동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정을 살리는 일이었다. 이러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가족을 구원하고 가정예배를 세우는 선교적 거점으로서의 가정선교의 장을 열게 되었다.

꿈마을교구 유준범 집사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가정예배의 도구로는 새중앙교회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큐티 책을 활용하여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이 때 부모와 자녀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고르며 자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아이도 부모와 자연스레 소통하게 된다. 선교적 거점으로서의 가정예배는 각기 다른 세대가 동일한

<sup>72</sup>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르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러한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시고, 아담의 갈비를 취해 하와를 창조하셨다. 이 때부터 비로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부부가 되고,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모습을 최초의 신앙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대 간의 간격을 줄여주는 효과를 경험하였다.

향촌교구 김진희, 오승의 집사 부부는 급작스러운 사고가 나도 자녀들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점검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 이후에는 자녀들의 구원 문제를 교회 뿐 아니라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며 부모가 직접 신앙을 전수해 주는 가정을 세우고자 가정예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가정예배와 더불어 온 가족이 큐티시간을 통해 말씀을 묵상한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교회와 가정의 신앙교육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가정은 강력한 선교적 거점이 된다.

새중앙교회는 선교적 거점으로서의 바른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아버지학교와 어머니학교를 운영한다. 새중앙교회 아버지학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아버지학교란 이 시대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살아 있는 성령운동 중 하나로, 1995년 10월 서울 은누리교회에서 시작되었다. 깨지고 상처 받은 가정이 많아진 이 시대에 ‘가정의 문제는 곧 아버지의 문제’ 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운동이다.<sup>73</sup>

새중앙교회의 아버지학교는 1998년 6월 은누리교회 두란노에서 아버지학교 아웃리치를 새중앙교회에 개설하면서 처음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가정을 세우기 위한 사역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2004년 12월의 25기까지는 두란노 지역연합의 사역으로 개설되어 오다가 26기가 시작되던 2006년 3월부터 독립하여 ‘새중앙 아버지학교’ 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2025년 3월 현재 71기가 수료예정이다.

---

<sup>73</sup> 황덕영, *op. cit.*, 170.

새중앙 아버지학교의 특징은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라는 것이다. 봉사하는 스태프들 모두 아버지학교를 수료하고 변화된 아버지들로, 다른 아버지들처럼 사업이나 직장으로 늘 바쁜 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중앙 아버지학교의 스태프들은 열정을 다해 섬긴다. 선교적 거점으로서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이 선교적 삶을 살도록 훈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학교는 가정을 살리는 중요한 사역이 된다.

1987년 8월, 새중앙교회가 수백 명의 성도로 부흥할 즈음, 박중식 목사 부부가 부부생활 워크숍을 열었다. 목회 현장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부부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흰돌산 기도원에서 1박 2일로 개최한 부부생활 워크숍은 새중앙교회의 가정사역을 연 출발점이 되었다.<sup>74</sup>

부부워크숍이 어머니학교의 전신을 갖추게 된 것은 1999년 3월의 일이다. ‘가정의 회복은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가정의 중심은 어머니의 정체성을 세우는 교육을 시작하였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학교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강좌가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던 한과 아픔을 회복하는 일이다. 늘 가족들을 대접하고 섬기기만 했던 전통적 가정의 어머니들이 예쁘게 장식된 강의실에 앉아 아무런 수고도 없이 식사를 대접받는다. 섬김을 받는 행위에 익숙하지 않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게 된다.

어머니학교를 통해 회복된 어머니는 가정에서의 아픔과 상처도 치유 받는다. 그리고 치유 받은 어머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의 중보기도자로,

---

<sup>74</sup> 황덕영, Ibid., 174.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복 지킴이가 되어 선교적 거점으로서의 가정을 세워가게 된다.

## 2) 선교적 거점으로서의 지역선교

새중앙교회는 경기도 안양의 평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중앙교회의 1차적인 선교대상은 바로 지역사회이다. 새중앙교회가 선교적 거점이 되어 평촌 지역에 세워졌기 때문에 평촌지역을 섬기고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안양의 평촌 지역은 1991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수도권 1기 신도시이다. 새중앙교회는 아파트 입주 전도를 통해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아파트를 동 별로 담당하여 입주하는 가정을 방문에 물과 전도용품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전도한 결과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었다. 교회가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었을 때 교회는 지역의 선교적 거점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새중앙교회가 경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97년 지금의 부지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 2009년부터 교회 주변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2009년 11월 포일 자이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재개발, 재건축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새중앙교회의 주변 지역에 인구 유입이 또다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새중앙교회는 입주전도를 통해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아파트 입수에 앞서 입주민들이 사전점검을 하는 기간이면 사전 점검을 하러 방문한 입주 예정자들을 만나 신앙여부와 입주일 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입주 기간이 되면, 작성한 자료를

확인해 찾아가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였다. 그 결과 새중앙교회는 지역에서 전도에 가장 열심있는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되었다.

### 전도축제

새중앙교회가 1년에 두 차례 전도축제를 열고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태신자로 품고 전도하는 것은 새중앙교회가 지역선교의 선교적 거점이기 때문이다. 새중앙교회는 봄에는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통해, 가을에는 ‘새생명축제’를 통해 전교인이 이웃을 태신자로 품고 전도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에 지상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다.

1년에 두 차례 전도축제를 진행하게 되면, 약 6주 전 주일에 ‘태신자 작정 주일’로 예배를 드린다. 태신자 작정 주일에는 후보에 절취선이 있는 태신자 작정 카드가 삽지 되어 태신자의 이름을 적고, 한 장은 태신자를 품은 성도가 가지고, 한 장은 교회에 제출하여 교구와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 기도한다. 그리고 약 6주간 태신자 전도, 노방전도, 축호전도, 관계전도 등을 통해 쉬지 않고 지역에서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한다. 매 번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새가족이 새중앙교회를 방문한다.

그리고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지역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다. 지역선교는 ‘겸손과 섬김’의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새중앙교회의 봄철 전도축제의

이름이 ‘이웃사랑 초청잔치’에서 ‘이웃사랑 나눔잔치’로 바뀐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 ‘사랑나눔 7운동’은 교회가 지역에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역상권 사랑나눔’ ‘지역 환경 사랑나눔’ ‘지역 거리 사랑나눔’ 등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랑나눔 7운동의 대상은 1차 적으로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다. 코로나19 시기에 이러한 지역을 살리는 사역은 더욱 큰 빛을 발하였다.

### 비전캠퍼스

새중앙교회가 선교적 거점으로서 지역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비전 캠퍼스’이다. 2018년 새중앙교회는 ‘가서 제사 삼으라’라는 표어를 선포하고, 이 선교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 창조사역, 거점사역, 연합사역, 미래사역을 선교를 위한 4대 전략으로 선포하였다. 이 중 거점 사역으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지역,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등 어느 장소이든지 복음의 거점으로 세워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도록 하였다.

비전캠퍼스는 새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모델이다. 비전캠퍼스는 성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세워질 수 있다. 가정에 예배를 세우고 가정이 선교적 거점이 되면, 가정이 비전캠퍼스가 되는 것이다. 성도의 사업장이 복음의 거점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세우는 거점이 되면, 그 사업장이 선교적 거점인 비전캠퍼스가 된다. 성도가 있는 직장을 거점 삼아 직장에서의 예배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직장에 비전캠퍼스가

세워지게 된다. 성도가 있는 캠퍼스가 복음의 거점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거점이 되면, 대학 비전 캠퍼스가 된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선교적 거점으로 삼아 예배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학교에 비전 캠퍼스가 세워지게 된다. 이렇듯 비전캠퍼스는 선교적 자원인 선교적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세워질 수 있다.

새중앙교회의 장년교구 1호 비전캠퍼스는 고천교구에서 개척된 ‘고슴도치공부방 비전캠퍼스’이다. 이 때부터 공식적으로 ‘비전캠퍼스 개척예배’를 드림으로 성도의 삶이 있는 지역에 선교적 거점을 세우는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후에 코로나19 시기에도 비전캠퍼스는 끊임없이 개척이 되었다. 온라인 줌으로 개척예배를 드리기도 하였고, 예배인원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다. 현재는 000개의 비전캠퍼스가 개척이 되어 성도들의 삶의 거점에서 선교적 거점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다.

비전캠퍼스는 성도들의 삶의 거점에 중점적으로 개척이 된다. 그렇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개척이 되어진다. 새중앙교회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원예술대학교와의 협력이 좋은 예이다. 2022년 7월 31일에 새중앙교회와 계원예술대학교회가 협력 비전식을 가지고, 계원예술대학교의 비전캠퍼스 개척예배를 드렸다. 교회와 지역의 대학 캠퍼스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서명한 것이다.

또한 최전방 군부대에도 비전캠퍼스를 개척하였다. 파주 GOP에도 비전캠퍼스가 세워졌는데, 2022년 ‘블래싱 한반도’라는 주제로 진행된 비전공동체

연합 아웃리치를 통해 파주 군부대와 지역 교회들을 섬긴 일이 계기가 되었다. GOP는 민간 차원의 도움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캠퍼스가 개척되기 전에는 자발적인 예배가 전무한 곳이었다. 하지만, GOP는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남·북한이 만나게 될 접점지역이다. 그러한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황무지를 영적 부흥의 거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선교적 전략에 따라 ‘파주 GOP 비전캠퍼스’ 를 개척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비전캠퍼스는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비전캠퍼스가 처음 개척될 때는 사업장이나 학교 등과 같은 공간적인 거점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비전공동체의 경우는 꼭 공간적인 거점이 중심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 일하거나 같은 분야의 직업군, 혹은 같은 형편에 놓인 선교적 성도들의 모임으로 확장되었다.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정기적인 예배와 기도모임을 진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경우 지역의 이름을 붙여 비전캠퍼스의 이름이 만들어진다. ‘강남 비전 캠퍼스’, ‘가산 비전캠퍼스’, ‘홍대 비전캠퍼스’ 등이 그러한 예이다.

같은 직업과 은사를 중심으로 개척한 비전캠퍼스의 사례도 있다. ‘애듀 비전캠퍼스’의 사례이다. 애듀 비전캠퍼스는 8개의 초·중·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들과 국제학교 교사가 온라인 줌으로 개척예배를 드린 이후에 여건상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선교적 사역을 하였다.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각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며 방생하는 사례를 서로 공유하며 나눔을 가졌다.

같은 상황과 형편을 중심으로 개척한 비전캠퍼스의 사례도 있다. ‘맘스 비전캠퍼스’의 사례이다. 맘스 비전캠퍼스는 신혼부부 교구의 자매들의 예배

모임이다. 맘스 비전캠퍼스 모임을 통해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나누기도 하고, 남편 및 자녀와의 지혜로운 관계에 대해서 노하우를 나누기도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나눔을 갖기도 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비전캠퍼스의 다양한 모습 중 가장 큰 감동이 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는 ‘유스 비전캠퍼스’이다. 유스 비전캠퍼스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를 선교적 거점을 삼아 학생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행동하는 기도 모임이자 예배 모임이다. 과거의 청소년 사역은 담당 교역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심방하고 목양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교역자가 많은 학생들과 학교들을 다 찾아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매일 학교에 등교하는 선교적 청소년 성도들이 직접 예배와 기도모임을 인도하면 언제든지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3월 현재 유스 비전캠퍼스는 안양 지역을 중심으로 새중앙교회 청소년들이 있는 주변의 000개의 학교에 개척이 되어 선교적 거점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 3) 선교적 거점으로서 세계선교

#### 해외 아웃리치

새중앙교회의 선교적 거점 사역은 개인과 지역사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세계 여러 나라들을 선교한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선교사를 선교지에 파송하는 것이다. 2025년 3월 2일 현재 해외 파송 선교사는 000명이고, 협력 선교사도 000명이다. 해외에 공식적인 선교사를 파송 하는 일은 세계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공식적인 선교사는 교회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현지에서 직접 선교사역을 한다. 새중앙교회는 세계 선교의 거점의 역할을 하고, 선교사들은 교회의 파송을 받은 흩어진 거점이 되어 협력하는 것이다.

새중앙교회의 해외 선교사는 공식적인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선교적 자원으로서 선교적 성도가 해외 유학을 가게 되면, 비전선교사로 파송 하여 공부하는 나라에서도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파송 한다. 해외에 주재원과 같은 파견 근무를 가도 마찬가지이다. 선교적 삶을 결단하며 근무하는 나라의 비전선교사로 파송 하여 직장과 지역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파송 한다. 선교적 교회의 선교적 성도는 어디든 선교적 자원으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

또한 새중앙교회의 해외선교는 장기 선교 뿐 아니라 단기 사역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공식적인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적 교회의 선교적 성도이기 때문에, 해외의 선교지를 방문하여 세계선교를 실천한다. 새중앙교회는 이러한 단기 해외 선교사역을 ‘해외 아웃리치’ 로 이름하고 사역을 진행한다.

해외 아웃리치의 대표주자는 비전공동체 청년들이다. 비전공동체 청년들은 학생일 경우에는 방학의 시간을 활용하지만, 직장인 청년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 기간에 해외 아웃리치에 참여한다. 해외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해외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하기도 한다. 시골의 학교를 방문하여 캠프를 진행하기도 하고, K-POP의 문화적인 접착점을 활용하여 해외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 때로는 해외의 고아원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도 아웃리치 하며,

영적인 문이 막혀 있는 그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오기도 한다. 2018년에는 비전공동체 필리핀 아웃리치 팀이 순교한 선교사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2010년 필리핀에서 선교 중 순교한 고 조태환 선교사가 섬기던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 중학교 방문, 빈민가 급식 등 순교의 땅에 복음이 멈추지 않도록 사역하였다.

미취학아동부터 고등부까지의 연령대로 편성된 드림공동체도 선교적 성도의 삶을 실천하며 나아가고 있다. 새중앙교회가 선교거점으로서 이루어가는 세계선교에는 다음세대도 동참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의 다음세대 해외 아웃리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5년 고등부에서는 러시아로 아웃리치를 떠났다. 당시 방문 도시인 빠크롭카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 땅이었지만, 고등부가 찾아갔을 때에는 1백여 명이 성도가 신앙생활하고 있었다. 고등부 학생들은 사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아웃리치를 했다.

2016년에는 중·고등부가 연합하여 파송선교사인 배기창, 최수정 선교사가 사역하는 필리핀 안티폴로에서 아웃리치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아이타 부족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으며, 빈민가인 랑카안 지역으로 이동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는 심방사역도 진행하였다.

어와나 T&T 팀은 2018년 말레이시아 말라카 지역에서 아웃리치를 가졌다. 자폐아들을 교육하는 NGO 윙스를 방문하였고, 25년 가까이 말레이시아를 위해 기도하는 새벽기도회에 참가했다. 무슬림 아이들을 만나 교제하며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를 기도했다.

어와나 Trek 팀은 베트남 아웃리치를 진행하였다. 당시 베트남 선교회를

담당하던 팜반록 목사가 역과송을 앞둔 시점으로, 과송받아 갈 베트남 사역지를 어와나님이 먼저 방문하게 된 것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지만, 현재 기독교 인구는 3%에 불과한 국가이다. 주로 팜반록 목사가 사역하게 될 카이로스러닝센터를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졌다. 어린이들이 직접 건물에 페인트 칠도 하고, 한국 문화를 알려 주기 위해 한복을 차려입고 베트남 어린이들과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K팝 안무 등을 가르쳐주기도 했으며, 준비해 간 한식을 먹으며 교제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도 세계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다.

#### 새한반도센터 NCOK<sup>75</sup>

새중앙교회의 선교비전인 비전 백천만에서 백은 ‘백 개의 북한교회 개척’을 의미한다. 30년 이상을 준비하고 기도해오던 새중앙교회의 북한선교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2018년도에 발족된 도시환경연구소라고 볼 수 있다. ‘도시는 교회다’라는 비전에 따라 도시 공동체의 삶과 장소 자체가 교회가 되는 ‘도시교회’를 박세영 교수가 시작한 연구소다. 평촌에 자리하던 도시환경연구소가 2021년 비무장 지대와 가까운 과주로 옮기며 ‘NC URI 플랫폼’<sup>76</sup>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같은 해 6월 비무장 지대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통일촌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하나님ی 원하시는 도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2022년 1월에는 NC URI 플랫폼이 통일촌 내에 커뮤니티 센터를 개소했다. 통일촌은 육지에 위치하지만, 실제로는 섬마을과 같은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sup>75</sup> NCOK는 New Center for One Korea 의 약자이다.

<sup>76</sup> NC URI는 New Center Urban Research Institute 의 약자이다.

남쪽으로는 임진강이 흐르고 북쪽으로는 철조망으로 막혀 있어서 외부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지리적인 특징으로 주민들은 고령화되었고, 그마저도 3백 가구가 채 안되었다. 외부와 단절되어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마을에 커뮤니티 센터는 외부와 통일촌 마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1월에는 NC URI 플랫폼이 파주 운천리로 자리를 옮겨 지금의 새한반도센터 NCOK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되었다.

파주 새한반도센터는 남과 북을 연결하는 평화 지대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이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루게 되면,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를 육로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 의미에서 파주 새한반도센터는 통일한국과 세계선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22년 12월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의 새생명교회에는 몽골 현지 사역자 250여명이 새중앙교회의 제자훈련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다. 이날 참여한 사역자 중에는 1천8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참여한 사역자도 있을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다. 세미나 기간 중 제자훈련 교재인 ‘예수를 따르는 비전의 사람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명의 사람들’의 저자인 새중앙교회 황덕영 담임목사의 저자 강의를 통해 새중앙교회의 제자훈련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2023년 5월에는 두번째 세미나를 열고, 세미나 기간 중 ‘NCOK 몽골 새한반도센터’ 개척예배를 드렸다. NCOK 몽골 새한반도센터는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국가들을 아우르는 선교 거점이 된다. 그리고 통일한국 선교를 지원하는 해외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023년 7월에는 ‘NCOK 예루살렘 새한반도센터’가 개척되었다. 예루살렘

감람산에 위치한 이곳은 예루살렘의 접경지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아랍인들과 대립하고 있어서 남북한의 접경지인 파주와 비슷한 상황이다. 2023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진행된 새중앙교회 사역자들의 예루살렘 선교개척 아웃리치 기간 중 개척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세번째 NCOK 새한반도센터가 세워졌다.<sup>77</sup>

세 곳의 새한반도 센터는 새중앙교회의 세계선교의 거점이 되는 곳이다. 파주 NCOK 새한반도센터는 현재 분단상황에서 남한이 북쪽으로 갈 수 있는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몽골 NCOK 새한반도센터는 통일한국의 시대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중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 예루살렘 NCOK 새한반도센터는 복음의 출발점이자 복음의 땅 끝인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다.

---

<sup>77</sup> 이상영, “한걸음 더 선교적 교회로, 새중앙교회 2023년” 새중앙신문, 12월호, 2023년.

#### IV. 새중앙교회의 사례연구: “선교적 교회의 거점인 선교적 성도를 중심으로”

##### A. 사례 1. 새중앙교회 비전선교사

다음은 새중앙교회 최향순 권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sup>78</sup>

##### 1) 비전 선교사에 대한 이해

비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동기

질문 : 비전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답 : 처음에 저는 “비전 선교사”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 막연하고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선교사와의 구분이 잘 갖춰지지 않은 그 개념에 대해 혼란스러워 했죠. 저에게는 “내가 과연 비전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었고, 조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가족 성장반과 제자 훈련을 통해 제가 받은 양육과 기도의 체험을 통해 그 개념이 점차 선명 해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도와 기도, 양육에 참여하면서 제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신 그 사명이 단지 전도나 선교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제 일상 전체로 확장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sup>78</sup> 최향순 권사는 새중앙교회에서 비전선교사, 교구장, 구역장으로 헌신하는 평신도 리더십이다. 본 인터뷰는 필자의 연구 주제의 방향에 맞추어 각 항목을 순서에 관계 없이 대화의 흐름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주제 별로 재배치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하는 것은 네이버 클로바를 활용하고, 전체 문서를 각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은 MicroSoft사의 A.I Copilot을 활용하여 필자가 내용을 확인 후 재정리하였다.

비전 선교사란 무엇인가?

질문 : 권사님에게 비전선교사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 : 저에게 비전 선교사는 전문 선교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선교적 자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가정, 직장, 학교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며, “내 삶 자체가 복음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단순히 전도를 넘어서, 중보기도와 양육, 재정 헌신까지 포함되는 통합적인 신앙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제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소명으로 다가옵니다.

비전 선교사로써의 사명

질문 : 앞으로 비전선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사명과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답 :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세계의 1개 교회를 개척하는데, 헌신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요. 지금은 물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또한 저는 더 나이가 들고 교구장 구역장의 사역을 내려놓게 되면,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어요. 비전선교사로서 실버 세대를 섬기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역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 분들을 양육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주고 하는 데 비전이 있어요. 이러한 내용은 남편과도 나눈 내용이에요.

## 2) 비전 선교사의 사역

### 중보기도 운동

질문 : 비전선교사로서 기도생활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요?

답 : 저는 매일 구역별 중보기도와 릴레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우리 구역 전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도록 노력합니다. 기도 시간은 비전선교사로서 전도하고 양육을 하면서 점점 늘어나게 되어 1시간, 2시간으로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전도와 양육 활동과 병행할 때 개인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보기도 운동을 통해 내 신앙이 깊어지고, 주변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힘을 체험하며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 비전 1/5/3 운동

질문 : 비전 1/5/3 운동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죠?

답 : 비전선교사 팀에서 매 월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전도축제가 있는 봄과 가을 중심으로 지역을 전도했는데, 지난 겨울부터는 비전선교사 팀으로 상시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비전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이전에 관계전도에 국한 되어 있던 전도가 상시전도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각 구역장들에게 구역별로 한 명씩 만 전도하자는 목표를 주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양육에 집중하였습니다. 비전선교사에 대한 사역이 막연했을 때 1대1 양육을 하면서 비전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가족반과 성장반으로 교육한 성도들이 모두 제자훈련 제자반과 사역자 반을 듣거나 수료하였습니다. 제가 양육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중 한 분은 송혜진 성도입니다. 처음 송혜진 성도는 예배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상태였고, 그 당시에는 단지 주일 예배에 참석만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새가족반, 성장반과 제자훈련에 참여하면서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송혜진 성도는 이전보다 훨씬 은혜를 체험하며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구역 내 다른 성도들에게도 긍정적인 전도 및 양육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송혜진 성도가 꾸준한 제자 훈련 과정을 거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사례로 고성옥 집사를 들 수 있습니다. 고성옥 집사는 처음에는 교제에 익숙하지 않아, 구역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다소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고성옥 집사님과 함께 진행한 제자훈련 및 중보기도 모임, 그리고 각 구역 예배를 통해 그는 점차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재발견하게 되었고, 특히 구역 내에서 중보기도와 릴레이 기도, 그리고 공동체 전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성옥 집사님은 구역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며, 다른 성도들이 기도와 전도, 그리고 양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고성옥 성도님의 변화가 구역 전반에 긍정적인 연대와 영적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확신합니다.

### 1선교사 1봉사

질문 : 비전선교사로서 교회 내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나요?

답 : 비전선교사로서 특별히 봉사의 일을 더한 것은 없어요.

질문 : 그렇다면, 교구장, 구역장, 중보기도자로서 비전선교사 이전과 후의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답 : 교구와 구역 공동체에서 사역할 때에 지금까지도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사역을 해왔지만, 비전선교사로 임명 받은 이후에는 내가 속한 교구와 구역 가정을 섬기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매일 중보기도 하고, 공동체를 섬기며, 선교적 교구의 일을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 3) 비전 선교사로서의 삶이 전도에 미치는 영향

제가 비전 선교사로 임명 받은 후에는 단순히 일회성 전도가 아니라 매일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전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구역마다 전도를 한번씩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지금은 비전선교사 팀을 중심으로 상시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 후 중보기도와 지속적 양육을 통해, 전도의 결과가 단발적인 만남에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대1 양육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내가 양육을 받는 것 같은 도전을 받습니다.

### 4) 비전 선교사로서의 삶이 신앙성숙에 미치는 영향

새가족반과 성장반을 가르칠 때에 신앙의 수레바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이웃과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볼 때 이 두

관계에서의 믿음 생활을 균형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르치면서 내가 먼저 매일 기도로 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과 말씀을 늘 먹지 않으면 안된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필사도 올 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 뿐 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와 전도하는 것에 네 가지가 다 균형 있게 해야 정상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성장반을 가르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새중앙교회의 구역모임이 개강하여 모일 때만 교구와 구역을 돌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교구와 구역이 방학을 하는 겨울방학 같은 때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돌보고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구장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내려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반과 성장반으로 양육 하다보면 하나님이 주신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sup>79</sup> 가장 먼저는 가족들이 이전에는 교회 사역에 전념하는 모습을 좋지 않게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행복해 보인다고 이야기 하곤 합니다. 전도하고 양육 하지만,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양육을 받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기도 받는 자가 되고, 내가 말씀 듣는 자가 되고, 내가 양육 받는 자가 되어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새 해 첫 주 선교주일에 저에게는 크다고 할 수 있는 선교헌금도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두 선교적 교회에서 선교적 삶을 살면서 가능한 일입니다.

<sup>79</sup> 하박국 3장 16-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 5) 요약 정리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선교적 교회의 선교적 성도가 선교적 자원으로써 살아갈 때에 신앙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전선교사로서의 성도의 삶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려웠던 비전선교사라는 개념이 제자훈련을 통한 양육을 통해 명확해지고, 점차 비전선교사 자신과 비전선교사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둘째 비전선교사로서의 삶을 통해 의무적인 전도를 벗어나 상시전도의 삶을 살게 되었으며, 전도와 양육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삶 전체가 전도와 선교의 삶이 되고, 개인기도와 중보기도의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다.

셋째 비전선교사의 삶이 개인의 삶의 성숙을 넘어서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주면서, 비전선교사 뿐 아니라, 다른 공동체 구성원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비전선교사에게 양육을 받은 성도는 지역 교구에 잘 정착하게 되었고, 또 다른 제자가 되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이것은 비전선교사가 선교적 삶을 통해 영적인 재산을 이루는 열매를 이루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넷째 비전선교사로서의 삶은 단순히 전도와 양육의 분야를 넘어서 개인의 경건과 가정에도 큰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적인 자원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전선교사의 사역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공동체적으로도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선교적 교회의 선교적 성도가 선교적 자원으로서 비전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B. 사례 2. 새중앙교회 비전캠퍼스

다음은 새중앙교회 권희영 권사의 서면 설문내용과 인터뷰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작성하였다.<sup>80</sup>

### 1) 신앙성숙의 관점에서

비전캠퍼스를 개척하게 된 동기

리포트 : 죄로 인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인 나를 영원한 생명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 하십니까?”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때 마침 주일예배 담임목사님께서 우리는 영혼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선교사처럼 해외에 나가야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 일터 직장 사업장 가정 그곳이 선교지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비전선교사의 삶,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일터 사업장이 선교의 거점이

<sup>80</sup> 권희영 권사는 새중앙교회에서 비전선교사, 권사회장, 구역장으로 헌신하는 평신도 리더십이다. 본 사례연구 내용은 사전에 항목을 전달하여 리포트를 받아 1차적인 자료를 얻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인터뷰를 통해 문서를 작성하였다. 인터뷰한 내용은 문서화하여, 주제 별로 재배치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하는 것은 네이버 클로바를 활용하고, 전체 문서를 각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은 MicroSoft사의 A.I Copilot을 활용하여 필자가 내용을 확인 후 재정리하였다.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공간 비전캠퍼스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비전캠퍼스에 대한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답 : 저는 예전부터 순교라도 할 수 있고, 해외에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비전캠퍼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었을 때, 단순히 예배당이나 교회 건물이 아닌 일상 속의 모든 공간을 선교적 거점으로 세우는 것에 대하여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비전캠퍼스 개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비전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신앙활동

리포트 :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반 성장반을 양육 하는 지역교사로 제자 삼는 사역을 하며 교구의 구역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문 : 비전 캠퍼스에서는 어떤 신앙적인 일들을 하고 있나요?

답 : 비전 캠퍼스에서는 다양한 신앙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큐티 본문을 통해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업장으로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에게는 새가족반과 성장반을 양육하기도 하였습니다. 비전캠퍼스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선교적 거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

예배 생활의 관점에서

리포트 : 내가 속한 일터가 작은 교회 또 하나의 선교적 공동체라는 생각이 든다. 예배가 살아야 제자를 삼을 수 있고 예배를 세울 수 있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말씀을 붙잡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먹고 가까이 하며,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기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권사님 예배생활이 구체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답 : 비전캠퍼스를 개척하기 전에도 주일예배와 새벽예배, 각종 교회의 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비전캠퍼스 개척예배를 드린 이 후에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나의 사업장이 선교적 거점이 되었다는 생각에 같은 예배임에도 누리는 은혜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경건생활의 관점에서

리포트 : 영적 훈련과 자기 절제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벽기도와 성경통독,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한 경건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질문 : 비전캠퍼스 개척예배를 드린 후에 말씀과 기도생활에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답 : 예배에 대한 자세와 은혜가 달라진 것처럼 말씀을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 완전히 달라진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이전과 같이 하고 있었지만, 약간 나태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몸과 마음을 미루는 것도 있었고, 게을러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고, 새벽예배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개척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마음이 편해진 것도 있습니다. 저 뿐 만 아니라 사업장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사업장에 오면 너무 좋다고 말하곤 합니다. 편하다고 이야기하고 공간이 다들 좋다고 이야기 합니다.

## 2) 비전캠퍼스가 선교적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 비전캠퍼스와 선교적 삶

리포트 :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에 확장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 비전캠퍼스와 전도

리포트 :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전도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전도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합니다.

질문 : 비전캠퍼스를 개척한 이후에 어떻게 전도하고 계신가요?

답 : 비전캠퍼스를 개척한 이후에는 가게에 오는 사람들이 손님이고 고객이지만, 영혼으로 보여요. 그래서 더 전도에 힘쓰게 됩니다.

비전캠퍼스와 지역나눔

리포트 :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나눔을 본받아서 주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켜보며 사랑을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 비전캠퍼스 개척예배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 : 비전캠퍼스 개척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새중앙교회의 거점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 비전캠퍼스는 예배 장소로 대여도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필자: 네 다른 곳은 지역에서 구역예배 장소로 대여하기도 합니다. 저도 비전캠퍼스를 예배 장소로 대여해드리고 싶어요.

비전캠퍼스와 선교비전

선교거점으로거의 비전캠퍼스의 역할

리포트 : 선교는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이

각자의 자리와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이 배우고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 사명을 기억하며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필자 : 비전 캠퍼스를 선교적 거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교 거점으로거의 비전 캠퍼스의 역할은 사업장이 예배 장소로도 열리게 되고 구역 예배 장소로도 열리게 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선교적 거점으로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전캠퍼스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선교자원으로서의 비전캠퍼스의 역할

리포트 : 선교가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이다.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배우고 노력하고 준비 해야겠다” 는 다짐이 있었다.

필자 : 권사님이 선교사적 삶으로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업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업장이 거점이 되어 권사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거점의 역할입니다. 비전캠퍼스 안에는 비카지기<sup>81</sup>인 권사님이 있죠, 그리고 권사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 즉, 예배자원이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로 동역 하는 성도들도 거점을

<sup>81</sup> ‘비카지기’ 는 비전캠퍼스를 담당한다는 의미의 ‘비전캠퍼스 지기’ 의 줄임말이다. 새중앙교회는 선교적 거점으로 비전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영어로 Vision Campus 단어별 앞 두 철자를 붙여 ‘VICA’ 즉 ‘비카’ 라고 부른다.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모든 인원들이 선교적 거점에서의 선교적 자원이 됩니다. 사업장을 통해 얻은 물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면 선교적 자원으로의 물질이 됩니다. 선교적 교회의 선교적 성도가 선교적 자원이 되어 선교적 삶이 됩니다.

권희영 권사 : 네. 목사님 비전캠퍼스 사역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 3) 요약정리

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새중앙교회의 선교적 목회전략인 비전캠퍼스를 통해 해외 뿐 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의 거점을 삶고 살아가는 성도의 사례를 볼 수 있다. 비전캠퍼스라는 선교적 거점의 개념은 기존의 해외 선교에 있어서 훈련 받은 공식적인 선교사가 해외 선교의 거점이 되듯이 선교사적 삶을 헌신한 선교적 성도가 자신의 사업장을 선교적 거점으로 삼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비전캠퍼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전캠퍼스는 해외 뿐 아니라, 선교적 성도의 삶의 자리가 선교적 거점이 될 수 있는 선교적 사역의 모델이 된다. 해외에서 선교적 거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민족을 파악하는 시간과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언어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물질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비전캠퍼스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언어로 자신에게 있는 물질과 건강과 시간의 자원을 당장 드릴 수 있다.

둘째 비전캠퍼스는 지역 사회의 복음의 거점이 된다. 사업장은 손님이

찾아오는 곳이다. 교회는 전도 후 인도해와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선교적 거점인 비전캠퍼스로써의 사업장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

셋째 비전캠퍼스는 사역의 거점이 된다. 비전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모일 수 있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거점의 역할을 한다. 예배의 공간이 필요한 소그룹 공동체에는 공간을 대여할 수 있다. 지역을 전도하는 전도팀에게는 전도용품을 두는 전도용품 창고가 된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할 수 있는 거점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전캠퍼스는 개인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한다. 비전캠퍼스를 개척하고 개척예배를 드리게 되면, 작은 새중앙교회가 되므로 비전캠퍼스를 지키는 비카지기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사례연구에 참여한 성도의 고백처럼 개척예배를 드린 이후에 예배, 말씀, 기도, 전도에 이르는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어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한다.

### C. 사례 3. 새한반도 센터

다음은 필자가 본 논문의 주제와 내용에 맞추어 작성한 항목에 파주 새한반도센터를 섬기는 전문인 선교사 박세영 선교사가 작성한 리포트이다.

#### 1. 새한반도센터에 대한 이해

##### 1.1. 새한반도센터의 설립목적

새한반도센터(New Center for One Korea, NCOK)는 통일한국과 열방을

향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한반도를 핵심 축으로 사도행전 1:8절의 말씀에 따라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며, 마지막 주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세계 선교 전략을 펼치며, 마지막 주자의 시작점인 한반도의 남과 북이 서로 접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접경 지역 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sup>82</sup>

특히, 새한반도센터는 분쟁과 평화 가능성이 공존하는 접경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분쟁 지대를 평화 지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보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교지형을 다극화하고, 외교 파트너를 다자화 하여, 한반도의 미래에 협력해야 할 곳과 연결할 것입니다.

새한반도센터는 앞으로 오게 될 통일한국의 시대에 열방을 섬기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1.2. 새한반도센터의 사역방향

1.2.1. 통일한국과 열방 선교 새한반도센터는 통일한국과 열방을 향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한반도를 핵심 축으로 세계 선교 전략을 펼치며, 남과 북이 접하는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접경 지역 간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2. 분쟁 지대에서 평화 지대로 전환 새한반도센터는 분쟁과 평화

---

<sup>82</sup> 이재웅 “하나님께서 곧 북한에 복음의 문 여실 것”, *크리스찬 투데이*, January, 4, 2023.

가능성이 공존하는 접경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분쟁 지대를 평화 지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며, 남북 관계 활성화를 위해 외교지형을 다극화하고 외교 파트너를 다자화 하는 한편, 한반도의 미래와 불가분 하게 연결된 지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1.2.3. 플랫폼 형식의 운영 새한반도센터는 플랫폼 형식으로 운영되며, 마음을 같이 하는 개인과 기관들이 센터에 입소하여 공간을 공유하고, 프로젝트에 따라 조합을 구성하여 협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2. 새한반도센터의 창조사역

### 2.1. 육로를 여는 사역

새한반도센터(New Center for One Korea, NCOK)는 남북을 연결하는 육로를 여는 사역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분쟁과 평화 가능성이 공존하는 접경 지역에서 분쟁 지대를 평화 지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한반도센터는 과주 문산과 북한의 개성과 연결하는 위치에 있어서 과주 문산과 개성을 연결하여 평화 공간을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새한반도센터는 남과 북이 서로 접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접경 지역 간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통일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보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교지형을 다극화하고, 외교 파트너를 다자화 하며, 특히

한반도의 미래에 불가분 연결된 유엔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2. 영로를 여는 사역

새한반도센터는 단순히 육로 뿐만 아니라 영로(항공로)도 여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더욱 다양화하고,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한반도센터의 영로를 여는 사역은 남북 간의 교통망을 확장하여 물류와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주요 활동

- 1) 항공로 개설 및 확장: 남북 간 직항로를 개설하고 기존 항공로를 확장하여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 2) 항공 협력 프로그램: 남북 간 항공 관련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술 교류와 인력 양성을 촉진합니다.
- 3)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 국제 항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남북 간 항공로 개설을 지원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새한반도센터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열방을 섬기는 통일한국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3. 새한반도센터의 거점사역

### 3.1. 지역 내 위치

새한반도센터는 경기도 파주 운천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천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sup>1</sup>. 이곳은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통일한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3.2. 대한민국 내 위치

새한반도센터는 경기도 파주 운천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천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곳은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통일한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남북 관계 및 통일 관련 활동을 위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천역 인근은 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거점 중 하나로서, 새한반도센터의 활동에 중요한 위치입니다.

### 3.3. 세계선교에서의 위치

새한반도센터(New Center for One Korea, NCOK)는 한반도를 핵심 축으로 세계 선교 전략을 펼치며, 통일한국과 열방을 향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남과 북이 서로 접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접경 지역 간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4. 새한반도센터의 연합사역

### 4.1. 연합의 목적

새한반도센터(New Center for One Korea, NCOK)의 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화와 통일: 새한반도센터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며, 남북관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 지대를 평화 지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국제사회와의 협력: 새한반도센터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 외교지형 다극화, 외교 파트너 다자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열방을 섬기는 통일한국: 새한반도센터는 통일한국이 열방을 섬기는 국가가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한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 선교 전략을 펼칩니다.

4) 플랫폼 형식의 운영: 새한반도센터는 플랫폼 형식으로 운영되며, 마음을 같이 하는 개인과 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통일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4.2. 연합의 결과

새한반도센터(New Center for One Korea, NCOK)는 다양한 연합 사역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운천마을과의 협력: 새한반도센터는 파주 운천마을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천마을 이장에게 천사박스를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국제사회와의 협력: 새한반도센터는 유엔 교육연구소(UNITAR)와 제네바연구소(Geneva Institute for Leadership & Public Policy)와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고, 남북 관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청년 이사와의 협력: 새한반도센터는 청년 이사들과 함께 한반도 통일 사역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이사들은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통일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 사역을 통해 새한반도센터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열방을 섬기는 통일한국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5. 새한반도센터의 미래사역

### 5.1. 선교적 거점으로서의 역할

새한반도센터(New Center for One Korea, NCOK)는 한반도와 세계 선교를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교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1) 세계 선교 네트워크 구축

새한반도센터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접경 지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지역들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글로벌 선교 전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2) 통일한국 비전 제시

새한반도센터는 통일한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을 통해 세계 선교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열방 선교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3) 남북한 협력 및 교류

새한반도센터는 남북한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선교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을 촉진하여 선교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4) 국제사회와의 협력

새한반도센터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선교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국제기구 및 기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지지를 얻고, 세계 선교의 중요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새한반도센터는 한반도와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선교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열방을 섬기는 통일한국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5.2. 북한과 세계로 가는 비전

새한반도센터(New Center for One Korea, NCOK)는 북한과 세계로 나아가는 비전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1) 북한과의 협력 증진

새한반도센터는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2)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새한반도센터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엔, 국제기구 및 기타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지지를 얻고, 세계 선교의 중요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 3) 세계 선교 네트워크 구축

새한반도센터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접경 지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지역들과 연결을 강화하고, 글로벌 선교 전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4) 통일한국 비전 제시

새한반도센터는 통일한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을 통해 세계 선교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열방 선교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5)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운영

새한반도센터는 북한과 세계 각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선교와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을 배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통해 새한반도센터는 한반도와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선교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열방을 섬기는 통일한국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6. 새한반도센터가 교회에 주는 영향

### 6.1.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성숙의 관점에서

새한반도센터(New Center for One Korea, NCOK)는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한 영향들입니다:

#### 1) 신앙의 실천과 성숙

새한반도센터는 성도들이 신앙을 실천하고 성숙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남북한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성도들이 실제로 신앙을 실천하며, 이를 통해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 2) 공동체 의식 강화

새한반도센터는 성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도들은 센터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서로를 섬기고 협력하는 경험을 통해 신앙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습니다.

#### 3) 글로벌 비전 제시

새한반도센터는 성도들에게 글로벌 비전을 제시하여, 그들이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향한 선교적 비전을 품고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 4)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새한반도센터는 성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들이 신앙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들은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신앙 생활에서의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 6.2.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의 선교비전의 관점에서

새한반도센터(New Center for One Korea, NCOK)는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교비전을 심어주고, 그들의 선교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한 영향입니다:

#### 1) 선교비전 강화

새한반도센터는 성도들에게 글로벌 선교비전을 제시하여, 그들이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향한 선교적 비전을 품고, 선교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 2) 선교적 경험 제공

새한반도센터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선교적 경험을 제공하여, 그들이 직접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갖게 되며,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 3) 선교 네트워크 구축

새한반도센터는 성도들과 함께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교적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다양한 교회와 선교 단체 들과의 협력을 통해 선교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 4) 선교 교육 및 훈련

새한반도센터는 성도들을 위한 선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들이 선교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선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교 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 수 있습니다.

### 5) 선교 프로젝트 지원

새한반도센터는 성도들의 선교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그들이 실제로 선교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선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새한반도센터는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이 선교비전을 품고, 선교 활동을 통해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6.3. 선교적 교회의 선교사역적 관점에서

새한반도센터(New Center for One Korea, NCOK)는 선교적 교회의 선교사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한 영향입니다:

### 1) 선교사역의 전략적 지원

새한반도센터는 선교적 교회의 선교사역을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성도들과 교회들이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선교적 교회들이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선교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2)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 구축

새한반도센터는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교적 교회들이 세계 각지에서 선교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선교적 교회들은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3) 선교사 훈련 및 양성

새한반도센터는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들이 선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선교사들은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선교 현장에서의 도전에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 4) 자원과 지원 제공

새한반도센터는 선교적 교회들에게 다양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 지원, 선교 자료,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교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5) 지역 사회와의 협력

새한반도센터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선교적 교회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선교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선교적 교회들은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새한반도센터는 선교적 교회의 선교사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성도들이 신앙과 선교 비전을 품고 선교사역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sup>83</sup>

---

<sup>83</sup> 이 문서는 필자가 논문의 주제와 방향에 맞추어 제시한 한목을 새한반도 센터의 박세영 선교사가 정리한 리포트이다.

## V. 결 론

### A. 연구요약

#### 연구 배경 및 목적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현대 사회는 글로벌화와 기술과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과 개인주의로 인하여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지나면서 전통적인 토대의 공동체의 붕괴와 사회 구성원들의 유대관계를 약하게 하였다.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교회 역시 기존 교회의 전통적인 목회적인 전략으로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부흥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교회가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한 세상에서 교회는 ‘가사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기존 교회의 행사 중심의 전도와 전문인 선교를 넘어서 모든 성도가 자신이 속한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선교적 삶’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선교적 교회 모델이 전통적인 교회론과 구별되는 측면, 즉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고, 교회가 기존의 전통적인 목회 안에서의 안정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대위임령의 명령에 따라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에 대하여 연구한다.

연구를 위해 실제적인 전략과 사례를 새중앙교회의 40여 년의 역사를 통해 선교적 부흥과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을 소개한다.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으로 제자훈련, 선교훈련, 그리고 다양한 실천 사례와 협력사역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선교적 목회전략과 실천이 교회와 성도의 성숙과 부흥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전통적인 통계자료 및 정량적 분석 대신, 새중앙교회의 실제적인 사례와 현장에서의 사역을 기반으로 한 질적 연구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선교적 교회의 이론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는 새중앙교회의 선교행진, 제자훈련 교재, 내부 주보 및 간행물을 중심으로 레슬리 뉴비긴, 찰스 E. 벤 앵겐 등 선교학자들의 저술과 신학 문헌을 검토하여, 선교적 교회의 신학적 기초와 전개,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목회전략과의 차별점을 기술하였다.

사례연구 및 소개는 1983년 박중식 원로목사의 개척부터 1997년 현재 부지로의 이전, 2017년 황덕영 담임목사를 통한 2기 사역을 통한 선교관 및 선교센터, 새한반도센터 개척 및 운영에 이르는 교회의 사역을 사례별로 분석하였고, ‘이웃사랑 나눔잔치’와 ‘새생명 축제’의 전도축제, 비전 백천만과 비전 백천만을 이루기 위한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 비전선교사와 비전캠퍼스의 개척 과정, 전세대 아웃리치와 전세대 해외 아웃리치 등의 사역을 고찰하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과 사역들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선교적 교회로서의 목회전략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입증하였다. 사례소개는 인터뷰와 보고서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정리하는데 있어서는 I·T 기술과 A·I 기술을 활용하여 문서를 정리하고 작성하였다.

이러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수치적인 통계자료 없이도 새중앙교회의 선교적 목회전략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실제적인 과정을 실제적이면서도 심도 있게 규명하고, 그 효과가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 성장과 선교적 공동체의 결속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였다.

####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선교적 교회의 역사적 신학적 이해는 레슬리 뉴비긴과 GOCN 등 선교학 선구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선교적 교회는 복음이 교회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선교적 자원’이라는 핵심 원리를 기술하였다. 전통적 교회가 내부 안정과 조직적 성장에 집중한 것과 달리, 선교적 교회는 “세상 중심”의 전도 및 선교 활동을 통해 교회의 질적 성장과 신앙 공동체의 성숙을 이루었다.

교역자와 평신도가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제자훈련 및 선교훈련의 ‘새가족반’,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 등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 평신도들이 훈련받은 제자로서 복음 전파, 양육, 중보기도에 참여하는 선교적 자원으로서의 성장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훈련 받은 제자인 비전선교사는

인터뷰에서는 “내 삶이 비전선교사로 헌신한 이후 전도 뿐 아니라 성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의 영역에서 크게 성숙하게 되었다” 고 고백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이 실제적으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삶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은 새중앙교회의 목회전략과 비전이 그 토대가 된다. “비전 백천만”, “NEW CENTER 비전”, “창조·거점·연합·미래” 등의 비전을 통해 전세대 아웃리치와 비전선교사 체계를 도입하고 모든 성도가 예배를 통해 받은 영적인 동력으로,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 파송 받은 일상 속에서 전도와 양육에 힘쓰는 선교적 삶으로 인도한다. 이러한 선교적 성도인 삶은 개인의 신앙의 성숙 뿐 아니라, 선교적 성도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부흥하고 성숙하게 되는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새중앙교회의 목회전략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목회에서의 선교모델이 아닌, 새로운 선교모델을 제시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거점을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례들을 기술하였다. 새한반도센터, 비전캠퍼스 등의 선교모델을 통해 세계선교와 지역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도들은 매일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강화되고, 파송받은 곳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는 실천적 삶을 살게 된다.

#### 학문적·실천적 기여

먼저는 선교적 교회의 이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와

목표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학문적인 고찰은 성경적인 관점과 신학적인 관점을 통해 정리하였고, 신약성경에서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 되는 ‘대위임령’ 과 ‘선교위임령’ 에 대하여 기술함으로 성경적인 기초를 기술하였다.

실천적인 관점에서는 새중앙교회의 선교적 목회전략과 선교적 교회의 사역을 통해 교회의 질적 성장과 부흥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적인 실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실천적인 사역에 대한 소개

더 나아가 겸손과 섬김으로 협력할 때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하여도 소개한다. 협력하기 어려운 관계인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연합의 사례를 통해 겸손과 섬김으로 선교전략을 이루어 갈 때 선교를 위한 네트워크와 글로벌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기술하였다. 새한반도센터는 통일한국과 세계선교의 거점의 역할을 하면서 선교이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선교단체들과의 연합을 통해 새중앙교회가 세계선교에 앞장 설 뿐 아니라, 세계 선교의 전략을 기획하는데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새중앙교회의 겸손과 섬김의 선교적 목회전략은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가 갖추지 못했던 선교적 네트워크와 선교를 위한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

## B.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 연구의 한계

사례의 국한성: 본 연구는 새중앙교회의 사례에 집중되어 있어, 타

문화권이나 다양한 교파의 선교적 교회와의 비교 분석이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계량적 검증 자료의 부족: 연구는 주로 심층 인터뷰, 참여관찰, 내부 자료 분석 등 질적 방법에 의존하여, 선교 목회전략의 교회의 수치적인 부흥에 대한 증거가 어렵다. 또한장기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에 관한 객관적 계량자료가 부족한 점이 있다.

위기 상황 특수성: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위기 상황에서의 선교 활동 지속성 분석은 시기적 특수성에 따른 한계가 있기에, 코로나19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 어려운 실천사항이 있다.

#### 향후 연구 방향

다양한 사례 비교 연구: 최근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문화권 및 교파의 선교적 교회 사례를 포함한 선교 목회전략의 보편성과 지속 가능성이 가능한 연구가 필요하다.

계량적 및 종단 연구 확대: 설문조사와 통계 자료 수집을 통해 선교적 교회의 목회전략의 실제적인 효과와 실제적인 지역사회 안에서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국제 협력 네트워크 장기 연구: 실제적인 비전 백천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은 직접 할 수 없는 통일한국 시대의 선교비전과 통일한국의 시대에 육로를 통한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사전적인 협력에 대한 제안과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외국어 서적

Darrell Guder. Editor.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MI: Eerdmans, 1998.

Wesley Baker. *The Split-Level Fellowship*. Philadelphia: Westminster, 1965.

### 번역서적

찰스E. 벤 앵겐.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임윤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레슬리 뉴비긴. *삼위일체적 선교*. 최형근 역. 서울: 바울, 2015.

### 한국어서적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885.

장동민.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황덕영 편. *40 새중앙교회 이야기 선교행전*. 경기: 글로벌 제자훈련원, 2018.

박중식 편. *30 새중앙교회 이야기*, 경기: 로템나무 아래서, 2013.

이상훈 편.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21.

## 논문

장준우. “선교지에서 선교적 교회 모색: 태국 남부 끄라비에서 관계적/영적 교회 연구” *뉴저지*, 2021.

황덕영. “통적적 선교의 회복에 관한 연구: 새중앙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뉴저지*, 2018.

조대용. “네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와 겸직 목회의 관계에 대한 실천신학적 고찰” *뉴저지*, 2023.

김현준. “선교적 교회를 위한 교육목회모델: 세광교회 복음 세우기 운동 사례연구” *뉴저지*, 2021.

## 기타 간행물

이상영. “한걸음 더 선교적 교회로, 새중앙교회 2023 년” *새중앙신문*, 12 월, 2023.

이대용. “하나님께서 곧 북한에 복음의 문 여실 것” *크리스찬투데이*, 1 월, 2023.

## 웹 페이지

<https://www.sja.or.kr/Page/Index/105>

<http://www.cbntv.tv/m/view.php?idx=8704&mcode=m85jkui>

## VITA

## PERSONAL DATA

Full Name: Sunil Kim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August 22, 1979Parent`s Names: Myeongja Kim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gree</u>	<u>Date</u>
Secondary: <b>Gocheok High School</b> 162, Jungang-ro, Guro-gu, Seoul,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998
Collegiate : <b>Anyang University</b> 22, Samdeok-ro 37beon-gil, Manan-gu, An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B.A	Feb 18, 2005
Graduate: : <b>Anyang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b> 22, Samdeok-ro 37beon-gil, Manan-gu, An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M.Div	Feb 19, 2008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Sunil Kim

Name typed

March 5, 2025

Date